

民族改造論

辯言

나는 많은 희망과 끊는 精誠으로, 이 글을 朝鮮民族의 將來가 어떠할까, 어찌하면 이 民族을 現在의 衰頹에서 건져 幸福과 繁榮의 將來에 引導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兄弟와 姉妹에게 드립니다. 이 글의 內容인 民族改造의 思想과 計劃은 在外同胞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내 것과 一致하여 마침내 나의 一生의 目的을 이루게 된 것이외다.

나는 朝鮮內에서 이 思想을 처음 傳하게 된 것을 無上한 榮光으로 알며, 이 貴한 思想을 生覺한 偉大한 頭腦와 共鳴한 여러 先輩同志에게 이 機會에 또 한 번 尊敬과 感謝를 드립니다.

願컨대, 이 思想이 사랑하는 靑年 兄弟姉妹의 純潔한 가슴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이다.

辛酉十一月十一日 太平洋會議가 열리는 날에
春園 識

[上]

民族改造의 意義

近來에 全世界를 通하여 改造라는 말이 많이 流行됩니다. 일찍 歐洲大戰이 끝나고 巴里에서 平和會議가 열렸을 때에 우리는 이를 世界를 改造하는 會議라 하였습니다.

因하여 國際聯盟이 組織되매 더욱 狂悅하는 熱情을 가지고 이는 世界를 改造하는 機

關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일에나 작은 일에나 改造라는 말이 많이 流行되게 되었습니다.

改造라는 말이 많이 流行되는 것은 改造라는 觀念이 多數 世界人의 思想을 支配하게 된 標입니다.

진실로 오늘날 新刊書籍이나 新聞雜誌나 演說이나, 심지어 商品의 廣告에까지, 또 日常의 會話에까지 改造란 말이 쓰인 것은 아마도 空前한 現象일 것이외다.

무릇 어떤 觀念이 支配하던 時代가 지나가고 새로운 어떤 다른 觀念이 支配하는 時代가 올 때에는 반드시 人心에 更新이라든지, 改革이라든지, 變遷이라든지, 革命이라든지 하는 觀念이 드는 것이지만은 更新, 改革, 革命, 하는 觀念으로 滿足치 못하고 더욱 根本的이요, 더욱 組織的이요, 더욱 全般的, 滲透的적인 改造라는 觀念으로야 비로소 人心이 滿足하게 된 것은 實로 이 時代의 特徵이라 하겠습니다. 「只今은 改造의 時代다!」 하는 것이 現代의 標語이요, 精神이외다. 帝國主義의 世界를 民主主義의 世界로 改造하여라, (.....二十一字省略.....) 生存競爭의 世界를 相互扶助의 世界로 改造하여라, 男尊女卑의 世界를 男女平權의 世界로 改造하여라.....이런 것이 現代의 思想界의 소리의 全體가 아닙니까.

이 時代思潮는 우리 땅에도 들어와 各方面으로 改造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朝鮮 사람으로서 時急히 하여야 할 改造는 實로 朝鮮民族의 改造이외다.

大體 民族改造란 무엇인가. 一民族은 다른 自然現象과 같이 時時刻刻으로 어떤 方向을 取하여 變遷하는 것이니, 한 民族의 한 歷史는 그 民族의 變遷의 記錄이라 할 수 있습니다. 檀君時代의 朝鮮民族, 三國時代의 朝鮮民族, 高麗나 李朝時代의 朝鮮民族, 또는 같은 李朝時代로 보아도 壬亂以前과 以後, 甲午以前과 以後, 이 모양으로 朝鮮民族은 끊임없이 變化하여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난 뒤 三十年間으로 보더라도 朝鮮이 어떻게나 變하였나. 政治는 말 말고 衣服, 住居, 習慣 等 밖에 드러나는 것 뿐 아니라 우리의 思想의 內容, 感情의 傾向까지 몰라보게 變하여 왔습니다.

男子가 상투를 베고 女子가 쓰게를 벗어버린 것이 어떻게 무서운 變化오니까. 過去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只今도 나날이 變하여 갑니다. 더욱이 再昨年 三月一日 以後로 우리의 精神의 變化는 무섭게, 急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變化는 今後에도 限量없이 繼續될 것이외다.

그러나, 이것은 自然의 變化이외다. 또는 偶然의 變化이외다. 마치 自然界에서 끊임없이 行하는 物理學的의 變化나 化學的의 變化와 같이 自然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偶然히 行하는 變化이외다. 또는 無知蒙昧한 野蠻人種이 自覺없이 推移하여 가는 變化와 같은 變化이외다.

文明人의 最大한 特徵은 自己가 自己의 目的을 定하고 그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計劃된 進路를 밟아 努力하면서 時刻마다 自己의 速度를 測量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本能이나 衝動을 따라 行하여지지 아니하고 生活의 目的을 確立합니다. 그리하고 그의 一舉手一投足の 모든 行動은 오직 이 目的을 向하여 統一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의 特色은 計劃과 努力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文明한 民族의 特徵도 自己의 目的을 意識的으로 確立하고 그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一定한 組織的이요, 統一的인 計劃을 세우고, 그 計劃을 實現하기 爲하여 組織的이요, 統一的인 努力을 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原始時代의 民族, 또는 아직 分明한 自覺을 가지지 못한 民族의 歷史는 自然現象의 變遷의 記錄과 같은 記錄이로되, 이미 高度의 文明을 가진 民族의 歷史는 그의 目的의 變遷의 記錄이요, 그 目的을 위한 計劃과 努力의 記錄일 것이외다. 따라서 原始民族, 未開民族의 目的의 變遷은 오직 自然한 變遷, 偶然한 變遷이로되, 高度의 文明을 가진 民族의 目的의 變遷은 意識的改造의 過程이외다.

그러면 어떠한 境遇에 改造現象이 생기나. 이미 가진 民族의 目的과 計劃과 性質이 民族의 生存繁榮에 適合치 아니함을 自覺하게 되는 境遇이외다. 그 성질로 그 目的을 向하여 그 計劃대로 나가면 滅亡하리라는 判斷을 얻는 境遇이외다. 이러한 自覺과 判斷을 얻는 것부터 벌써 高度의 文化力을 가졌다는 證據니, 그것이 없는 民族은 일찍 이러한 自覺을 가져 보지 못하고 不識不知中에 마침내 滅亡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외다. 能히 全民族의 生活의 核心을 洞察하여 이 方向의 進路는 滅亡으로 가는 것이외다

하는 分明한 判斷을 얻는 것이 그 民族의 更生하는 첫걸음이외다. 萌芽이외다. 그리고 한 번 이러한 判斷을 얻기는 聰明하게 새로운 目的과 計劃을 定하여 民族生活의 針路를 轉하도록 意識的으로 組織的으로 努力하는 것이 그 民族의 更生하는 唯一한 길이니, 이는 꼭 聰明하고 勇斷있고 活氣있는 民族 아니고는 能치 못할 것이외다.

나는 以上에 民族改造란 것이 民族의 生活의 進路의 方向變換, 즉 그 目的과 計劃의 根本的이요, 組織的인 變更인 것을 暗示하였습니다. 오직 어떤 部分을 改革하거나 候補한다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말하면 그 앉은 方向과 基礎와 室의 配置와, 構造와 材料를 전혀 새로운 設計에 의하여 다시 짓는다 함이니 비록 낡은 材料를 다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新設計에 맞추어 쓸 만한 것이면 쓰는 것이 될 뿐이외다. 그러므로, 民族의 改造라는 것은 如干한 境遇에 경이 부르짖을 바가 아니니,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이대로 가면 亡한다 할 境遇에 乾坤一擲의 大決心, 大氣魄으로 할 것이외다. 過去의 歷史로 보건대 一民族의 全生涯(四千年이나 五千年)에 말하여 二, 三次되기가 어려울 것이외다. 青年다운 生氣가 없이는 到底히 못할 일인 듯합니다. 다음에는 世界歷史上에 民族改造運動의 實例 몇 가지를 들어 더욱 民族改造라는 思想을 分明히 하려 합니다.

歷史上으로 본 民族改造運動

첫째로 들 것은 古代希臘에 在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의 民族改造運動이외다. 當時 希臘은 波斯에 對한 戰勝과 商業의 發展과 文化의 爛熟으로 人民의 利己와 巧詐와 遊佚에 흘러 民族的一郎, 鞏固한 團體生活의 힘이 날로 消耗하여지고, 그 時勢의 產物인 詭辯學派가 一世를 風靡하여 國民道德이 地를 拂하게 되었습니다. <刻印의 準繩은 自己라>하는 詭辯學派의 標語는 奉公이라든지, 相互扶助라든지 하는 團體生活에는 生命이라 할 道德의 權威를 無視하는 말이외다. 이때에 소크라테스는 <이대로 두면 亡한다>는 飄然한 自覺으로 奮然히 일어나 正義의 實在와 奉公의 德의 權威를 力說하였고, 그의 首弟子 플라톤은 國家中心의 道德을 絶叫하였습니다. 只今에는 소, 플, 兩氏를 哲學의 祖로 傳하지마는 其實 兩氏의 目的은 哲學의 建設이 아니요, 自己네의 사랑하는 國家와 民族의 救濟이외다.

그네의 哲學은 千古에 傳하여 崇仰의 標的이 되지마는 그네가 필생의 精力을 다하여 救濟하려 하던 祖國은 마침내 救濟치 못하고 말았으니 그네의 主觀으로 보면 그네는 生活에 失敗한 사람이외다. 그네의 地下의 靈이라도 祖國은 가고 哲學만 남은 것을 못내 슬퍼하였을 것이외다.

흔히 國家를 바로 잡을 뜻을 가진 자는 그 國家의 政權을 自己의 手中에 掌握하기를 唯一한 길로 압니다. 더욱이 東洋이 그러하고, 더욱이 古代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國家의 興亡이 政權에 있는 것이 아니요, 政權을 運用할 人物과 政權의 支配를 받을 人物을 包括하는 人民에 있음을 自覺하여, 國家의 運命을 安泰케 하려면 人民의 思想이 健全하여야 한다는 點에 着目하고, 人民의 思想을 改造하려면 그 人民의 次代요, 後繼者인 青年의 思想을 健全케 하여야 한다는 點에 着目하여 그 一生을 青年의 教育에 바쳤습니다. 그는 眞實로 民本主義의 先覺者요, 國民教育의 先覺者요, 民族改造運動의 先覺者이외다. 孔子나 孟子는 一生에 政權을 救하기에 汲汲하였고 거기 失敗함에 비로소 青年子弟를 教育하였으니 그네는 아직 民族改造의 眞實을 自覺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每日 아테네 青年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 닥치는 대로 青年을 붙들고 그 有名하고 獨特한 對話法을 應用하여, 첫째 그 青年이 現在에 가진 思想의 錯誤를 自覺케 하고 正義와 奉公의 概念을 注入하기로 일을 삼았습니다. 이리하여 每日 一, 二人씩 乃至 十數人씩 接하여서 一生에 아테네의 民衆의 思想을 改造하려하였습니다.

그는 無數한 逼迫과 貧窮의 苦痛을 하고 마침내 毒藥을 마시는 날까지 이 民族改造事業에 盡瘁하였습니다. 과연 이 어른은 千古에 儀表가 되어서 마땅한 어른이시외다.

그러나, 이러한 偉大한 人格과, 信仰과, 熱誠을 가지고도, 그 어른의 사업은 失敗에 歸하였습니다. 그가 毒藥을 받고 돌아가심으로 더불어 그의 事業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失敗의 原因이 어디 있을까. 이는 眞實로 큰 問題이외다. 民族改造의 可能 不可能을 決斷할 만한 큰 問題이외다.

그의 失敗의 原因은 <團體事業>이란 것을 깨닫지 못한 點에 있습니다. 民族改造의 事業은 繼續的으로 長久한 歲月과 數多한 人物과 金錢을 要求하는 大事業입니다.

첫째, 繼續的이라는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假令 소크라테스가 一個의 青年을 救濟하여 新人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 新人된 青年이 다시 재래의 環境 속에 들어가면,甚하면 舊에 復하여 버리고 말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숨은 촛불이 되어버리기 쉬울 것이니 특별히 偉大한 人格者가 아니고는 單獨으로 社會의 風조를 對抗하고 正복하기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特出한 人格者는 民衆의 指導者로 一代에 一, 二人 밖에 나기 어려운 것이외다. 그런즉 多數의 凡常한 新人으로 하여금 그 信을 一生에 保存하고 아울러 그 信의 힘을 發揮케 하려면 新人된 날부터 新人의 環境 속에 처(處)하는 것이 絶대로 필요하니, 그 環境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新人만으로 되어 共通한 理想을 가진 強固한 團體외다. 이러한 團體가 있어 惑은 會습으로, 惑은 文字로, 惑은 公同한 事業의 經營으로 平生에 서로 刺激하고 서로 協力하여 가는 中에 그 新人들이 新 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할뿐더러 그 思想이 더욱 깊이 뿌리를 박고, 널리 加持를 뺏어 갈 것이외다. 그러므로, 團體를 만드는 것은 改造된 各個人으로 하여금 改造의 環境속에 繼續的으로 處하게 하는데 絶대로 必要한 것이외다. 그런 것을 소크라테스는 이 方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처럼 얻었던 同志를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외다. 플라톤과 같은 高名한 弟子 一人보다 平凡한 弟子 여럿이 民族改造의 目的을 爲하는데는 더욱 重要할 것인데.

또 團體라는 무기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크라테스의 事業은 그 勢力이 크지 못하고 또 그 生命이 길지 못하였습니다. 위에도 말한 바와 같이 民族改造의 事業은 아마도 온갖 事業 中에 가장 偉大하고 困難한 事業일 것이외다. 그러므로 이 事業을 成就하기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偉大한 힘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오랜 生命을 가져야 할 것이외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얻는데는 오직 團體를 이룸이 있을 뿐이외다.

個人의 生命에는 限이 있는 것이라 오래 살아야 八, 九十이니 三十에 주의가 確立하여 七十까지 活動할 精力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四十年에 不過할 뿐더러 個人이란 언제, 어느 때에 그 뜻이 挫折될는지 모르고, 또는 그 生命도 언제 없어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重要한

思想의 發見이 있거든 그것을 自己以外的 사람에게 傳하여 두는 것이 絶大로 必要합니다. 대개 한 가지 思想의 불꽃은 몇 千年에 하나씩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한 번 不幸히 꺼지면 이는 人類에게 恢復할 수 없는 永遠한 損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니, 마치 貴重한 美術品이나 文籍을 盜難이나 火災를 면할 만한 安全한 處所에 看守하여 두는 模樣으로 이러한 貴重한 思想은 아무쪼록 散佚되지 아니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傳播되고 實現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외다. 이러하는데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습니다. 孔子나 孟子 같은 이는 弟子를 澤하는 方法을 취하였습니다. 釋迦나 예수나 소크라테스도 그러하였습니다. 子淵이나 플라톤이나 기타 近世의 思想家들은 著述의 方法을 취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다니며 선전 설을 하는 方法을 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思想을 保存하고 선전하는데 必要한 方法이로되, 그 中에 가장 重要한 方法은 團體를 組織함외다. 예수는 이 方法을 취하여 教會라는 團體를 세웠고, 그의 弟子들도 잘 그의 뜻을 體하여 教會를 完成하였습니다. 釋迦나 기타의 宗教라 하여 오래 살아가고 널리 傳播된 思想은 다 이 團體라는 무기를 이용한 것이외다. 近代에 이르러 社會學이 發達되며 더욱 團體의 利益됨이 分明히 알려져 온갖 思想의 保存, 宣傳, 實現에 이 무기가 자유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가령 德體知 三育을 標榜하는 基督教 青年會라든지, 禁酒, 禁煙의 同盟이라든지, 모두 이런 것이외다. 團體에 왜 그러한 위력이 있는가. 그것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新思想을 받은 新人으로 하여금 繼續하여 그 環境에 處하여 그 思想을 잃어버리지 않게 함이요, 둘째는 同思想을 標榜하는 數多人이 一團이 되어 言語나 行動이 一致하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뚜렷이 世上에 드러나서 自然하고 有力한 宣傳의 效果가 있는 同時에 그 團體自身에게도 一種의 自負와 自信이 생김이요, 셋째는 多數人의 能力과 學識과 技能과 金錢을 모두 個人으로는 到底히 發할 수 없는 偉大한 勢力으로 그 思想의 向上과 現實에 關한 事業을 經營할 수 있음이요, 넷째는 個人의 生命은 有限하되 團體의 生命은 無限하여 永久히 그 思想의 保存, 宣傳, 實現의 事業을 經營할 수 있음이외다. 소크라테스가 만일 이 方法을 採用하였던들 그의 理想인 아테네人의 救濟를 成就하였으리라고 確信합니다.

너무 말이 岐路에 든 듯하나 團體와 내가 말하려던 朝鮮民族 改造運動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張皇한 것을 참고 이렇게 말한 것이외다. 또 소크라테스의 民族改造運動은 그것이 歷史上에 顯著한 첫 實例요, 아울러 당시 아테네의 形便과 소크라테스의 失敗失敗한 經路가 꼭 우리와는 因緣이 깊은 듯이 생각합니다.

다음에 歷史上에 顯著한 民族改造運動의 實例로는 프레드릭大王時代의 普魯시아, 뽀뜨르大帝時代의 아라사와, 인텔리겐치아, 社會主義者 등의 아라사에서 한 運動, 日本의 明治維新등이겠습니다. 將次 民族改造의 大運動을 일으키려 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事實이 모두 興味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여기서 一一이 敍述하고 批評할 餘裕도 없고 必要도 없는 것이니, 다만 통틀어서 아라사나, 普魯시아나, 日本이 各各 그때 맞추어 民族改造의 運動을 아니 일으켰던들 말 못 되게 衰頹하였을 것과 또 그 民族改造運動이 모두 어떤 意味로 보든지 團體的 事業이었던 것만 主義해 두려 합니다. 그런데 뽀뜨르大帝, 프레드릭大王, 明治天皇의 維新이 어찌하여 團體의 이겠느냐 하는데 對하여서는 두어 마디 說明이 必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史冊에 紀錄한 것을 보면, 果然 무슨大帝, 무슨大王의 單獨的 事業같이 보이지마는, 其實 무슨大帝나 무슨大王은 그 事業을 經營하던 團體의 代表者요, 中心人物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외다. 가령 日本의 維新史를 봅시다. 明治天皇을 中心으로 木戶, 大久保, 西郷, 伊藤, 大隈 등등 모든 政治家, 福澤, 森, 新島 같은 新思想家, 教育家, 加藤弘立, 井上哲次郎, 三宅雪嶺, 德富蘇峰, 高山樗牛 같은 여러 思想家, 學者, 坪內雄藏 같은 文士, 澁澤榮一 같은 實業家, 其他 무릇 新日本을 建設하기에 努力한 有力無名의 無數한 일꾼이 모두 五個條의 誓文과 教育勅語를 宗旨로 한 團體의 團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외다. 비록 어떤 特定한 名稱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中心人物이 마침 國家의 主權者였기 때문에 大日本帝國이라는 國家의 名稱下에 民族改造의 事業을 進行한 것이지만 그 뜻이 같고 中心人物을 通하여 나오

는 命令에 服從하여 組織的으로 民族改造의 大事業을 經營한 點으로 團體事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외다. 아라사의 인텔리겐치아의 事業은 더욱이 私說團體的色彩가 濃厚합니다. 紙上이나

口頭로 社會改造論을 하여 듣고 싶은 자는 듣고, 하고자 하는 자는 하여야 하는 式으로 到底히 이러한 大事業은 生念도 못할 것이외다. 나는 이제 項을 새로 하여 가지고 우리 朝鮮 近代의 民族改造事業을 論評해서 漸漸 내가 只今 提唱하려는, 아니 차라리 紹介하려는 民族改造運動論에 접근하려 합니다.

甲申以來의 朝鮮의 改造運動

조선이 날로 衰頹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하여 改造할 생각을 가진 이도 꽤 많이 있었을는지 모르되, 事業으로도 남은 것이 없고 言論으로도 남은 것이 없으니, 甲申以前의 일은 말할 수 없습니다. 丁若鏞 先生이 꽤 새로운 생각을 가지셨다 하지마는 나는 아직 그 어른의 글을 읽어볼 機會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이 或 새로운 思想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書籍을 깨친 것 外에 特히 무슨 事業을 始作한 것을 듣지 못하니 그를 民族改造運動의 第一人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距今 四十四年前 甲申에 金玉均, 朴泳孝 등의 政府改革運動이 있었습니다. 當時 中央·地方 할 것 없이 全國 一切의 政權을 籠絡하던 明成皇后를 중심으로 한 閔氏一派를 들어내고 維新後의 日本의 空氣를 吸入한 新進人物의 손에 政權을 掌握하려는 運動이외다. 이는 丙寅洋擾가 있는 후 十九年, 丙子修護條約이 있는 후 九年이니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이라는 大院君의 標語로 意識的으로 徹底한 鎖國政策을 實行하던 말로의 弔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金玉均, 朴泳孝一派의 運動은 워낙 根柢가 없는 運動이기 때문에 一擊에 失敗되고 말았습니다. 그 根柢란 무엇이나.

同志되는 人物과 事業의 資金이 될 金錢이외다. 만일 國家의 政權을 잡으면 國庫의 財産이 곧 資金이기도 하려니와 同志되는 人物에 이르러서는 政權을 잡는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 아니외다. 그때에 누가 있어 內政을 맡고 外交를 맡고 教育을 맡고 産業을 맡겠습니까. 누가 國家의 諸般機關을 同一한 步調로 運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네가 政權을 掌握하기보다 먼저 하여야 할 일은 同志요, 同業者 될 일군을 養成하는 것일 것이외다. 그리하여 이만하면 이 同志로 能히 一國을 料理하리라 할 만한 때에 政權을 잡으면 비로소 자기의 理想을 實現도 하였을 것이외다. 그만한 實力이 없이 비록 政權을 掌握하기에, 成功하였다 하더라도 그 理想은 一部分도 實現해 보지 못하고 所謂 三日天下가 되고 말았을 것이외다.

그로부터 滿十個年을 지내어 日淸戰爭이 생기고 그때부터 朝鮮이 完全한 獨立國이 되어 日本의 後援으로 金雄集內閣이라는 第一次內閣이 組織되어 여러 新人物로 그 閣員을 삼고 크게 政府革新을 企圖하니, 이것이 所謂 甲午更張이외다. 그러나 制度와 法令은 아무리 새로워도 그것을 運用하는 人物과 그 支配를 받을 人物이 여전히 낡으니 奈何오. 또 마침내 腐敗하고 守舊하는 點으로 多數의 同志와 勢力을 가진 舊派에게 壓倒되어 赤是 三日天下의 悲運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本來 朝鮮사람으로서 美國에 入籍하여 多年 그 나라의 文明의 風潮에 씻긴 徐載弼이 美國市民의 資格으로 外部顧問이 되어 京城에 來駐하매 그의 祖國이던 朝鮮의 更生은 到底히 政府의 改革, 政權의 掌握으로만 될 것이 아니요, 오직 一般民衆의 覺醒에 있음을 깨달아 獨立協會를 일으키니 당시 年少氣銳하고 美國宣教師와 培材學堂을 통하여 西洋의 文明을 맛본 李承晚, 尹致昊, 安昌浩 등이 協會의 旗下로 모여들어 一邊 演說會를 열며 一邊 獨立新聞을 刊行하여 民衆의 覺醒을 促하니, 이것이 朝鮮서 民族改造運動의 첫소리였습니다. 당시 그네의 主張하던 바는 革舊就新할 것, 西洋文化를 輸入할 것, 階級思想을 打破하고 自由平等의 思想을 鼓吹할 것, 政治上으로는 君主專制나 閔族專制主義를 打破하고 民主主義를 세울 것 등이니, 이는 美國의 感化를 받은 徐載弼一派의 思想의 當然한 反影일 것이외다.

특히 그 機關新聞인 獨立新聞을 純國文으로 한 것을 보면 그 主腦者들이 어떻게 民主主義의 이요, 過激하다 할 만한 革舊就新主義者인 것을 推知할 만하며, 또 民主主義의 鼓吹에는 國民 各個人이 그 國家의 盛衰興亡의 責任을 가진다는 愛國心을 高調하여 朝鮮에서 愛國이란 말이 獨立協會에서 爲始하였다고 할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當時 執權者가 負恣派를 떨어져 두들기는 바람에 그만 形跡도 없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母論 그 運動이 民心에 미친 影響이야 不小하지마는 獨立協會自體는 永永 消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失敗의 眞因은 결코 執權者의

強壓에 있는 것이 아니요, 協會自體에 胚胎된 것이니, 이제 그 原因을 講究함은 將次를 爲하여 徒勞가 아니리라 합니다.

獨立協會運動의 失敗의 첫 原因은 團結의 鞏固치 못함이외다. 누구든지 우리 主義에 贊成하는 者는 다 오너라 하는 主義로 함부로 좃어 모아 數의 많기를 바램은 朝鮮在來의 團體의 政策이외다. 이리하여 몇 千, 몇 萬의 徒黨을 모은다 하면 一時 보기에는 勢力이 雄壯한 듯하지만 이는 實로 烏合之衆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니 한 번 大打擊이 오매 모두 흩어지고 마는 것이외다. 그러할뿐더러 이렇게 모인 團體는 一時의 群衆心理를 利用하여 一, 二個人의 野心을 滿足하거나 急激한 破壞作用을 하는 데는 效力이 있지만 着實하고 長久한 事業을 하기에는 不適當한 것이외다. 着實하고 長久한 事業을 經營하는데는 그 團體의 團員이 各各 徹底하게 그 團體의 目的과 計劃을 理解하여 이를 爲하여서는 一心協力하기를 死而後已하리란 確固한 信念이 있는 것이 必要하니, 理想과 計劃을 徹底하게 理解하는 것이나, 一心協力하는 習性을 作하는 것이나, 確固한 信念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코 一朝一夕에 되는 것이 아니외다. 그러므로 이러한 團體를 만드는데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오래 두고 意見을 交換하여 그가 同志인 것을 確認한 뒤에야 加入케 하는 것이 必要합니다. 우리 사람들과 같이 아직 團體生活의 訓練이 없는 人民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하거든 獨立協會의 會員은 이러한 用意가 없이 모인 것이므로 一擊에 粉碎되고 만 것이외다. 獨立協會의 運動이 失敗된 둘째 原因은 政治的色彩를 가졌던 것이외다. 이 會가 만일 政治的改革을 目的으로 한 政黨이라 하면(아마 當時事情으로 그러할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할 것이 없지만 眞實로 民族改造를 目的으로 한다면 政治的色彩를 띠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政治의 權力이란 十年이 멀다 하고 推移하는 것이요, 民族改造의 事業은 적어도 五十年이나 百年을 小記로 하여야 할 事業인즉 政權의 推移를 따라 消長할 運命을 가진 政治的團體로는 도저히 이러한 長久한 事業을 經營할 수 없는 것이외다. 어떠한 黨派의 政府, 어떠한 主義政見을 가진 政府라도 容喙할 理由가 없는 團體라야 能히 어떠한 事業을 하여갈 것이니, 만일 獨立協會가 政治에 대하여 아무런 干涉이 없이 오직 教育의 振興事業의 發展, 民衆의 振作 같은 것으로만 目的을 삼았다면 當時의 執權者의 憎惡를 받을 리가 없었을 것이요. 그리하면 自己分內의 일만, 事業만 看看히 進行하였다 하면 今日까지에 莫大한 效果를 生하였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 會가 오직 政治的 事業을 目的으로 한 것이라면 모론 이러한 批評을 할 必要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會가 失敗된 理由는 人物이 없음이외다. 첫째로 人格과 學識과 能力이 족히 그 運動의 中心이 될 만한 中心人物이 없었고, 둘째는 그 中心人物의 指導를 받을 만한 會員과 그 會의 모든 事務와 事業을 分擔할 만한 事務家, 專門家가 없었습니다. 東洋式 생각으로 보면, 어떤 團體는 그 團體를 거느리는 英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한 團體가 成立되고 生活하여 가는 데는 三種의 人物이 乏의 三足과 같이 必要한 것이외다. 三種의 人間이란 무엇이뇨. 中心人物 또는 指導者와 專門家와 會員이외다. 指導者와 專門家되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만하지만 會員되기 어려운 것은 오직 아는 者라야 압니다. 會의 目的과 計劃을 잘 理解하여 그 規則을 잘 服從하여 會費를 꼭꼭 내고, 集會에 꼭꼭 出席하고, 會를 사랑하고 爲하는 會員되기는 如干한 訓練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외다. 獨立協會뿐 아니라, 이래 朝鮮의 各種團體가 失敗하는 原因의 가장 重要한 것은 그 會員들이 會員될 資格을 가지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近三十年이나 前에리요. 이러한 理由로 獨立協會의 事業은 失敗된 것이외다.

그로부터 얼마를 잠잠하다가 다시 十年을 지나 甲申의 日俄戰이 開始되매, 朝鮮에는 無數한 團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民族改造를 標榜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觀念을 가진 것은 學會라는 이름을 가진 團體들이외다.

가장 먼저 일고 가장 勢力 있던 西北學會를 爲始하여 畿湖學會, 湖南學會, 嶠南學會 같은 것이 있어 教育을 爲한 遊說, 學校의 設立, 教科書의 刊行, 機關雜誌의 發行 등으로 教育熱을 鼓吹하였습니다. 이 團體들이 教育의 必要를 提唱한 點에서 一般의 進歩와 새로운 自覺을 하였다 하겠으나, 人物이 乏한 것(指導者·專門家·會員), 政治的色彩를 띤 것(當時의 事情으로는 免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團體組織의 要諦를 모른 것 등은 獨立協會와 다름이 없었고, 따라서 그 團體들의 말로도 거의 그와 同功異曲이었습니다.

그네는 아직도 民族의 改造가 朝鮮民族을 살리는 唯一한 길인 것, 그리함에는 教育이 根本되는 것, 그리함에는 有爲한 人物과 巨額의 資金을 가진 鞏固한 團結이 必要한 것, 이것이 當時에 부르짖던 獨立보다도, 帝國보다도, 政權보다도 必要한 것을 아직도 徹底하게 自覺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것을 徹底하게 自覺하였다면 좀더 着實하게, 좀더 緩緩하게 長久한 計劃을 세웠을 것이외다. 그네에게는 朦朧한 自覺과 熱烈한 誠意가 있었으나 透徹한 先見과 着實한 計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맘’만 있으면 일이 되는 줄 알아, 한갓 躁急하고 한갓 소리를 크게 하였습니다.

그네의 自覺치 못한 것 중에 가장 重要한 것은 民族改造의 大事業을 堪當할 만한 團體를 組織함에는 ‘會員될 자부터 養成하여야 된다’하는 것을 自覺치 못함이외다.

이미 있는 사람 또는 이미 된 사람으로써 能히 이러한 團體를 얻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根本的謬見이외다. 改造를 目的하는 團體는 그 會員이 이미 改造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니, 마치 禁酒를 宣傳하는 團體를 이루려면 그 團員부터 이미 禁酒한 사람이야 할 것과 같습니다. 주정꾼들이 모여서 술을 먹어가며 禁酒를 한다하면 이런 滑稽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民族改造와 같은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이름에는 그 團體의 組織보다도 그 基礎會員될 者의 더욱 必要하고 困難한 事業이외다.

또 하나 當時의 指導者가 自覺치 못한 重要한 點-이야말로 참으로 根本적으로 重要한 點은, 民族의 改造는 道德性方面으로부터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特別히 朝鮮民族의 衰頹의 原因은 道德的原因이 根本이니, 이를 改造함에는 道德的改造, 精神的改造가 가장 根本이 되는 것이라 함이외다. 이 點을 自覺치 못하고 그네는 오직 新知識의 注入만을 絶叫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新文明의 遂入期에는 免치 못할 일인 듯하지만, 그네가 朝鮮民族의 衰頹의 根本原因을 道德的腐敗에서 찾을 줄을 모르고 오직 知識의 缺乏에서만 찾으려 한 것은 큰 不聰明, 不自覺이외다. 或은 아직 그러한 時期에 達하지 못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道德的原因을 無始하고 知識만 鼓吹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今日까지도 知識만 重히 여기고 道德이란 것을 輕視하는 弊習을 생하게 된 것이외다.

나중에 寡居의 民族改造運動體로 들 것은 青年學友會이외다. 이 會는 成立되지 一年도 못되어 合併 때문에 解散을 당한 것이라, 世上에 드러난 功績은 별로 없지만 그 組織된 法이 以前의 모든 團體의 缺點을 參考하여 거의 理想에 가깝게 된 것으로 보아 新時期를 劃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會에서는 會員을 極히 慎重히 選擇하여 團結의 第一義를 지켰고, 둘째, 基本金의 積立을 實行하였고, 셋째는 德體知의 同盟修鍊을 重要한 目的으로 세워 그 中에는 德育을 高調하였고, 넷째, 政治的色彩를 一切로 띠지 아니하여 純全히 教育에 의한 民族改造運動을 目的으로 하였고, 맨 나중으로 한 번 작성한 規則을 嚴正히 지키었습니다. 이는 實로 朝鮮의 團體史에는 特筆할 만한 組織法이요, 兼하여 民族改造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로는 더욱 그 宣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不幸히 不得已한 事情으로 하여 廢絶되어 그 事業의 實績을 볼 수 없이 되었으니 큰 遺憾이외다.

以上에 나는 甲申以來 近四十年間의 朝鮮의 革新運動을 民族改造라는 見地에서 大略으로 批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運動들이 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自覺하여 무슨 새 方針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은 가졌다 하더라도 아직 「民族改造가 唯一한 生路다」하는 明確한 自覺과, 「그런데 民族改造는 이러한 主義, 이러한 計劃으로 해야한다」는 具體的意見에는 達치 못하였던 모양이외다(오직 青年學友會가 그러한 理想을 가졌던 모양이나)

이만하면 내가 提唱(차라리 紹介)하려는 民族改造論의 本論에 들어갈 準備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民族改造는 道德의 일 것

民族改造라 함은 民族性改造라는 뜻이외다. 一民族의 生活은 無數한 部門으로 된 것이니, 그 重要한 者를 들면 政治의 生活, 經濟의 生活, 文化의 生活(宗教의 生活, 藝術의 生活, 哲學의 生活, 社會의 生活) 등이외다. 이렇게 그 實生活의 部門이 極히 複雜하지마는 이 모든 生活의 樣式과 內容은 그 民族性의 如何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요, 民族性은 極히 單純한 一, 二의 根本道德으로 決定되는 것이외다. 例컨대, 英吉利로색슨族의 自由를 좋아하고 實際的이요, 進取的이요, 社會的인 國民性, 獨逸人의 理智的이요, 思索的이요, 組織的인 國民性, 라틴族의 平等을 좋아하고 感情的인 民族性, 中國人의 利己的이요, 個人主義的 民族性, 이 중에서 英吉利로색슨族을 뽑아 봅시다. 그네의 個人生活, 社會生活, 國家生活을 보시오. 어느 點, 어느 劃의 自由, 實際, 進取, 共動 같은 그네의 根本的 民族性의 表現이 아닌가. 첫째, 그네의 政治制度를 봅시다. 英國은 世界에 가장 처음이요, 또 가장 發達된 立憲國이니, 自由民權이란 思想은 實로 英國에서 그 源을 發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英國人은 自由를 바라는 同時에 實際를 좋아하므로 佛國人과 같은 空想的 革命을 일으키어 實際에 쓰지 못할 空想的 憲法을 세우려 아니하고 또 假定的으로 急激하게 變하려고 아니하고 極히 漸進的으로 人民의 自由를 擴張한 것이외다. 그 結果는, 感情的, 空想的으로 急激하게 理論만으로 보아서는 가장 徹底하게 自由를 主張하던 佛國人 보다도 훨씬 徹底한 自由를 享樂합니다. 그네는 一時에 理想的으로 制定한 憲法도 없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英國憲法은 一條씩 一條씩 주워모은 慣例의 集積에 不過합니다. 그 理論의 徹底함과 條理의 整然함이 도저히 年少氣銳한 青年들인 中國憲法制定委員의 지은 憲法에 비겨 훨씬 떨어질 것이외다. 矛盾 많고 不合理한 點 많기로 英國憲法은 世界에 第一이라 합니다.

그러나 中國의 憲法은 지어놓은 憲法이요, 英國의 憲法은 쓰는 憲法이외다. 英人에게는 쓸 데 없는 것은 眞實로 쓸 데 없게 여깁니다. 이렇게 그네는 甚히 實際的이요, 漸進的이외다. 그네의 要求하는 自由는 理論上의 自由가 아니요, 實用上의 自由외다. 그러한 贊同이 憲法도 英國의 實用上의 自由를 保障하기에는 넉넉한 것이외다. 그리면서도 英人은 國家로 하여금 自己個人의 自由를 干涉케 아니하리만큼 철저한 個人主義者외다. 그렇지만 그네는 國家生活, 社會生活, 즉 團體生活이 必要를 알아 奉仕의 精神이 旺盛하므로 그네는 能히 團體를 위하여(國家만이 아니요, 무릇 무슨 團體든지 自己가 屬한 團體를 위하여) 自己의 自由를 犧牲합니다. 그 犧牲함이 또 自由의 意思에서 發한 것이기 때문에 自由외다. 이번 歐洲大戰에도 그네는 自願兵으로 싸웠습니다. 政治制度뿐 아니라 宗教나, 哲學이나, 文學이나, 藝術이 모두 이 自由, 實際, 社會性, 漸進性 같은 英人의 根本性格에서 發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假令 英國의 哲學을 보시오. 獨逸人의 것과 같은 完全한 體系나 深奧한 思索도 없고 佛國人의 것과 같은 明快와 新奇한 맛도 없어 그 亦是 不完全한 實際的의 哲學이외다. 特히 哲學의 基礎되는 認識論과 哲學의 中心이라 할 人生哲學, 즉 論理學이 더욱 그러합니다. 理論的으로 보아 不完全하나 實際的으로 보아 쓸데가 많습니다. 實際란 워낙 不完全한 것이 特徵이니까요.

文學과 藝術도 그러합니다. 英文學에는 南歐文學의 艷麗, 芳醇도, 北歐文學의 深刻, 神秘도 없고 그네의 實生活와 같이 平淡하고 自然합니다. 그러나, 英文學은 文學 中에는 밥과 같습니다. 南歐文學을 葡萄酒에 비기고 北歐文學은 窩카(燒酒)에 비기면.

英人의 商業이나 植民地政策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 中에도 植民地政策을 보면 그 住人의 宗教, 習慣, 其他의 生活方式를 尊重하여 그 自由로운 發達에 맡깁니다. 이것이 또한 그네의 自由의 精神의 發露외다. 그네는 다른 民族의 民族性의 自由를 알아주고 구태여 이것을 자기네의 標準을 따라서 變革하려 아니합니다.

아마 그네는 他人의 性格을 自己의 標準을 따라 變革하는 것이 不可能한 줄을 아는 聰明을 가지기도 하였겠지만 自己의 自由를 甚히 사랑하는 그네는 차마 남의 自由를 죽이지 못함인 듯합니다.

또 그네의 植民地를 다스리는 制度를 보건데, 自己네의 本國을 標準하여 徹頭徹尾로 英國의 屬領이라는 標가 나기를 반드시 힘쓰지 않는 모양이요, 다만 實際로 自己의 植民地인 利益을 取하면 그만이라 하는 듯합니다. 마치 커다란 유니온잭 國旗를 그 땅에 달아놓으면 그만이지 구태,

房房谷谷이 家家戶戶이 유니온책을 그리고, 달고 해야 한다는 徹底한 생각은 아니 가진 듯합니다. 그리면서도 아주 思想的으로 徹底的이요, 組織的이게 母國化하려고 애쓰는 佛國보다 훨씬 有效하게 그 植民地를 母國化하는 功效를 얻습니다. 그네의 植民地는 繁昌하고 그네의 支配를 받는 異民族은 比較的 많은 自由를 享樂하고 그러면서도 그네의 母國은 植民地에서 얻을 利益을 넉넉히 享受합니다. 埃及과 比律賓은 英글로색슨族의 植民地政策 成功의 好標本입니다. 그리하고 그 成功의 原因 또한 그네의 根本性格인 自由, 實際, 奉仕, 漸進性 같은 精神에서 나온 것이외다

이렇게 英人의 모든 生活과 그 生活의 成敗는 그 민족의 根本性格 또는 根本精神에 基因한 것이외다.

民族心理學의 泰斗 佛國의 碩學 르 봉 博士는 그의 名著 《民族心理學》에,

『言語, 制度, 思想, 信仰, 美術, 文學 등 무릇 一國의 文明을 組織하는 각종 要素는 이를 지어낸 民族性의 外的表現이라.』(民族心理學 第二章 第一節)고 斷言하였으니, 이는 내가 以上에 屢屢이 說明한 바를 가장 簡明하게 結論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돌려 朝鮮民族의 이처럼 衰頹한 眞因을 찾아봅시다. 朝鮮民族이 어떻게 이처럼 衰頹하였느냐 하는 問題에 대하여 日本人은 흔히 李朝의 惡政이 그 原因이라하고, 西洋人도 그와 같은 뜻으로 Maladministration(惡政)이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 民族의 衰頹의 가장 直接되고 또 總括的인 原因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도 原因을 說明한 것은 아니니 이는 마치 英美가 强盛한 것은 그 善政에 말미암음이라 하는 것이 無意味한 말이외다.

구대 惡政이라 하는 말에 무슨 意味가 있다 하면 그것은 「朝鮮民族의 衰頹의 責任은 그 治者階級-卽 國王과 兩班에게 있다」 함일 것이외다. 果然 朝鮮에는 적어도 約 三百年以來로는 儼然히 治者階級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國王과 兩班. 一人의 國王과, 혹은 東西人, 혹은 老小論하는 全民衆의 몇 百分之一에 不過하는 少數階級이 世襲的으로 政治와 教化를 分擔하여 왔으니, 全民族을 衰頹케 한 直接의 責罪가 그네에게 있는 것은 事實이외다.

政治를 紊亂한 것, 産業을 衰殘케 한 것, 國民教育을 힘쓰지 아니한 것, 社會 風紀와 人民의 精神을 墜落케 한 直接의 責任者가 彼等인 것은 避치 못할 事實이외다. 더욱이 隣國의 治者階級이 西洋의 新文明을 輸入하여 大更張을 行할 때 그 隣國의 勸誘와 援助가 있음을 不拘하고 때 맞추어 維新의 速度를 行하지 못하여 써 全民族으로 하여금 徹天의 恨을 품게 한 것은 그네의 罪中에도 가장 큰 罪라 할 것이외다. 하지마는 한 걸음 더 내켜 생각하면 이 亦是 全民族의 責任이요, 또 한 걸음 더 내켜 생각하면 이 亦是 民族의 所使이외다. 만일 英人같은 自由를 좋아하는 精神이 있고, 佛人 같은 平等을 좋아하는 精神이 있다 하면 決코 信任치 못할 治者階級을 그냥 두지 아니하였을 것이외다. 또 治者階級인 그네에게도 自由, 平等, 社會性, 進就性이 있었다 하면 決코 朝鮮民族을 이렇게 못 되게 만들지는 아니하였을 것이외다. 治者이던 兩班이나, 被治者이던 一般民衆이나, 그가 가진 墜落한 民族의 犧牲이 되기에는 마찬가지로 朝鮮民族이외다. 만일 다시 民族性을 墜落하게 한 責任이 治者階級에 있다 하여 그네를 책망할진대 그러한 治者階級을 産出하고 存續케 한 責任이 또한 一般民衆에게 있다 하여 또 그네를 책망하게 될 것이외다. 그러므로 治者階級이던 兩班에게 民族을 衰頹케 한 直接의 責任을 지우더라도 별 수 없는 일이요. 要컨대 朝鮮民族 衰頹의 根本原因은 墜落된 民族性에 있다 할 것이외다.

朝鮮民族 衰頹의 原因이라도 惡政이라는 것이 이미 道德의 腐敗를 聯想케 하는 것이니, 대개 惡政이라 하면 識見이 不足하여 되는 惡政, 즉 爲政者의 動機는 國利民福을 爲함에서 나왔지마는, 知識이 없어서 惡政이 되는 惡政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惡政이라는 이름을 듣는 大部分- 특히 朝鮮民族을 衰頹케 한 惡政의 大部分은 이러한 善意의 惡政이 아니요, 진실도 그 動機부터 惡한 惡意의 惡政입니다. 곧 政事를 行함에 國家와 民生을 爲하여 하지 아니하고 自己 一個人 또는 自己와 利害關係를 같이 하는 一黨派의 利益을 爲하여 하는 惡政입니다. 假令 某가 領議政이 되었다 합시다. 그는 官吏의 任免이나 萬般施政을 國家를 爲)기 보다, 첫째 自己一身의 權勢, 둘째 自己의 親戚朋友의 出世, 셋째 自己와

休戚을 같이 하는 老論이나 少論의 權勢를 爲하여 합니다. 따라서 그의 손으로서 나온 모든 公職을 띤 者가 다 이리합니다. 朝鮮의 惡政은 實로 이러한 種類의 惡政이었습니다.

이제 이 惡政者를 道德的으로 分析해 봅시다. 그는 첫째 虛僞의 人이외다. 國事を 擧한다 하면서 私事を 하고 聰俊을 擧한다 하면서 黨與를 擧하고 罪人을 罰한다 하면서 私嫌을 報합니다. 敎化의 머리가 되는 大提學이 반드시 學識과 品格이 빼난 者가 아니며 元帥와 大將이 반드시 武勇과 戰略을 具備한 者가 아닙니다. 何必 例를 古代에 求하리오. 最近으로 보더라도 數萬의 侍衛隊, 鎭衛隊가 國防을 爲하여 있던 것이 아니요, 學部가 敎育을 爲하여 있던 것이 아니요, 무슨 大臣 무슨 局長이 國事を 하노라고 있던 것이 아니니 모두가 虛요, 모두가 僞외다.

둘째, 그네는 團體生活의 生命인 社會性 곧 奉仕의 精神이 없었습니다.

만일 公을 爲하여 私를 犧牲하는 精神 즉(卽), 一生의 思, 言, 行이 都是 國家와 民族을 爲함이라는 精神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憑公營私의 惡行을 한 것이외다.

이 虛僞와 私慾 두 가지가 治者로 하여금 그러한 惡政을 行하게 한 것이외다. 虛僞된지라 그네에게 正義가 없고 忠信이 없으며 私慾된지라 그네에게 國이나 民에 對한 愛도 敬도 없는 것이외다.

다음에 一般民衆이 또는 治者階級自身이 이 惡政을 改革하지 못한 原因도 또한 道德性입니다. 그네 中에도 이것이 그릇된 것을 自覺한 자가 있었을 것이외다.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글도 지었을 것이외다.

論語나 孟子도 決코 虛僞와 私慾을 가르치는 글이 아니니 이것을 외우는 그네의 口에는 殺身成仁이라든지 鞠躬盡瘁¹이라든지 遏人慾而存天理²라든지 忠君愛國이라든지 하는 말도 많이 하였을 것이외다. 그러면서도 이 惡政을 이내 고치지 못한 것은 첫째, 懶惰하여 實行할 精神이 없고 둘째, 怯懦하여 實行할 勇氣가 없고 셋째, 信義와 社會性의 缺乏으로 同志의 鞏固한 團結을 얻지 못한 까닭이외다. 改革의 事業은 空想과 空論으로 될 것이 아니요, 오직 實行으로만 될 것이요. 在來의 政權이나 習慣에 反抗하여 舊를 破하고 新을 建하는 偉業을 그 事業의 性質上 困難과 危險이 많은 것이니, 이를 能히 함에는 偉大한 勇氣가 必要합니다.

또 一國을 改革하려는 偉業은 決코 一, 二個人의 能力이 能히 할 바 아니요, 오직 鞏固하고 有力한 團體로야만 할 것이외다. 그런데 朝鮮史를 보면 흔히 改革者들이 國王이나 宰相에서 一篇의 意見書를 드림으로서 唯一한 方針을 삼고 가장 近代에 比較的 進歩한 思想을 가졌다 할 金玉均, 朴泳孝조차 겨우 十數의 同志를 陰謀의 手段으로 糾合함에 不過하였고 일찍 鞏固하고 勢力 큰 大結社에 想到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近年에 이르러 改革을 目的으로 한 여러가지 團體가 있었지만 내가 前에 말한 바와 같이 그 亦是 鞏固 團結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로 甲申以來로 三人以上의 團結된 同志가 三個月 以上을 그냥 그 團結을 維持한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 原因이 어디 있나, 虛僞, 懶惰, 無信, 社會性의 缺乏에 있습니다. 彼此에 虛僞되니 彼此에 不信하고 믿지 못하니 團結(團結)이 안됩니다. 團體生活의 第一要件은 진실로 서로 믿는 것인데 거짓말쟁이 속임군들끼리 모이면 무슨 단결이 되겠습니까. 둘째, 團體란 일하고자 만든 것인데 밤낮 空想과 空論으로만 일을 삼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셋째, 信義가 없이 彼此에 約定한 것을 지킬 줄을 모르고 團體에 對하여 正義理를 안 돌아보아 서로 미쁨이 없으면 무슨 團結이 되겠습니까. 「背叛」은 實로 朝鮮의 交友史, 團體史를 貫流한 惡德이외다. 이리하여 惡政의 改革을 行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위에 말한 나의 史論이 만일 正確하다 하면 朝鮮民族衰頹의 根本的原因이 道德的인 것이 더욱 分明하지 아니합니까. 곧 虛僞, 非社會的利己心, 懶惰, 無信, 怯懦, 社會性의 缺乏— 이것이 朝鮮民族으로 하여금 今日의 衰頹에 빠지게 한 原因이 아닙니까?

英美族의 興旺도 그 民族性의 原因이요, 吾族의 衰頹도 그 民族性의 原因이니 民族의 盛衰興亡이 實로 그 民族性에 달린 것이외다. 그러므로 一民族을 改造改造함에는 그 民族性의 根柢인 道德에서부터 始作하여야 한다 함이외다.

새술은 낡은 부대에 담지 못한다. 부대는 터지고 술은 쏟아지리라. 낡은 재목으로 새집을 짓지 못한다. 더구나 썩어져 무너진 집 재목으로 새집을 지으랴. 짓지도 못하리니와 지어도 다시

무너지리라. 衰頹하던 백성이 그냥 興旺하는 백성이 되지 못하리니 興旺하려면 그 백성부터 새롭게 힘있게 하여야 할 것이되다.

만일 그 썩어진 性格을 그냥 두면 아무런 努力을 하더라도 虛事가 되고 말 것이니 民族的 性格의 改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唯一한 길이되다.

民族性의 改造는 可能한가

나는 이 論文의 上篇에서 民族改造란 可能한 것이라는 뜻을 暗示하였습니다. 特히 소크라테스의 民族改造運動을 論評할 때에 單體事業으로만 하면 民族改造는 可能하다는 確信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소 民族改造運動을 開始하려고 드니 이것이 可能한가 아닌한가를 한히 알고 싶어집니다.

前節에 말한 바와 같이, 民族改造란 곧 民族의 性格 즉 民族性의 改造니 民族이란 改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本節에서 討論할 問題되다.

前에 引用한 르 봉 博士는 民族의 性格과 附屬의 性格의 二部가 있다 하여 附屬의 性格은 可變의이나 근본적 根本의 性格은 거의 不可變의이니 오직 遺傳의 蓄積으로 遲緩한 變化가 있을 뿐이라 합니다. 크롬웰 時代의 英人과 今日의 英人과는 거의 浬 民族같이 보이지만, 其實은 그 附屬의 性格이 特殊한 大事件·大變動의 影響을 받아 變하였음이고, 그네의 根本의 性格에는 거의 아무 變化도 없었다 하고, 또 나뵈레옹 大帝의 從順한 臣民이던 佛人과 바로 몇해前 大革命時代의 不羈自由하던 佛人과는 根本의 性格의 民族인 듯하나 其實 專制의 支配받기를 좋아하는 族의 根本性格에는 變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博士는 周圍의 事情, 무슨 大事變, 또 教育은 어떤 民族의 附屬의 性格을 變할 수 있으되, 그 根本의 性格을 變할 수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附屬의 性格을 一時 變하더라도 얼마를 지나면 다시 根本의 性格이 優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博士는 根本의 性格의 例로 英人로색슨族의 自由와 自治를 좋아하는 性格, 라틴族의 平等과 被治를 좋아하는 性格等을 들었습니다. 博士의 主張대로 한번 英人로색슨族의 性格은 아무리 變하더라도 그 自由를 좋아하는 性格은 變하지 못하리라. 그와 反對로 라틴族의 性格은 아무리 變하더라도 平等을 좋아하는 性格은 變하지 못하리라 하게 됩니다.

또 博士는 民族의 性格을 解剖의 性格과 心理의 性格의 둘로 나뉘서, 우리가 흔히 民族性이라고 일컫는 바를 心理의 性格이라고 하고 體質의 特徵을 解剖의 性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博士)는 一民族의 解剖의 特徵의 根本의인 몇가지가 變할 수 없는 모양으로 一民族의 心理의 特徵, 즉 民族性의 根本의인 몇 가지도 變할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假令, 黃色人種의 皮膚의 黃色 같은 것은 不可變의인 解剖의 特徵이되다. 그러나 解剖의 特徵에 이렇게 固定不可變한 것이 있다고 거기에서 類推하여 心理의 特徵에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 함은 한 假說에 不過한 것이라 科學의 精確한 證明을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歷史의 實例로 보건대, 그것이 眞理인 듯합니다. 博士가 이미 英人로색슨族과 및 自國人인 라틴族도 예로 들었지만 일찍 異民族으로서 完全히 同化하여 同一한 性格의 民族을 成하였다는 前例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면 各民族에게는 到底히 變할 수 없는 一個 또는 數個의 根本의 性格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特히 個人心理學上으로 보더라도 各個人마다 解剖의 特徵이 있는 모양으로 甲이면 甲, 乙이면 乙되는 個性에 根本의 特徵이 있어, 이것은 一生에 變하기 어려운 것을 보더라도 個人의 性格의 總和라 할 만한 民族性에도 變할 수 없는 根本의 性格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 하면 우리는 一種의 失望에 빠지게 됩니다. 民族性의 改造란 不可能이 아닐까 하는 疑惑이 생깁니다.

만일 民族의 根本의 性格도 變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 다시 말할 必要가 없거니와, 르봉 博士의 設과 같이 民族의 根本의 性格은 不可變의 것이라 하고, 民族의 改造할 方法을 研究해 보는 것이 必要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境遇가 있겠습니다. (一) 根本의 性格은 좋지만, 附屬의 性格이 좋지 못한 境遇와, (二) 根本의 性格 自身이 좋지 못한 境遇와. 그런데 첫째로 말하면 說明치 아니하여도 周圍와 大變動과 教育의 힘으로 改造할 수 있는 것이 分明하고, 둘째가 가장 어려운 問題이되다. 곧

根本的民族性이 좋지 못하고는 그 民族은 生存繁榮할 수 없거늘, 이것은 到底히 變化시킬 수 없는 것이라 하면 그 民族의 運命은 絶望的인 일 것이외다. 그러나 亦是 改造할 길이 있습니다.

根本의 性格이 좋지 못한 民族이라고 그 民族의 各個人이 다 좋지 못한 사람일 理는 萬無하니, 그중에도 小數나마 몇 개의 善人이 있을 것이외다.

마치 腐敗한 猶太人中에서 예수 같으신 이가 나시고 그의 使徒들 같은 이들이 난 모양으로. 이 小數의 善人이야말로 그 民族復活의 萌芽이외다. 十人의 善人이 없으므로 하여 소돔성이 天火에 亡하였다는 말도 진실로 意味深長한 말이외다.

이 小數의 善人, 다시 말하면 그 民族의 根本的惡性格을 가장 小量으로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民族은 改造해야 한다」는 自覺과 決心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自己와 뜻이 똑같은 사람 하나를 찾아 들어서 同盟을 합니다. 먼저 自己를 힘써 改造하고, 다음에 改造하자는 뜻이 같은 사람을 많이 모으기로 同盟합니다. 차차 三人, 四人씩 늘어 數千萬의 民族中에서 數百乃至 數千人을 募集하여 한 덩어리, 한 社會, 한 改造同盟團體를 이룹니다. 그러하면 그 團體의 各員은 더욱더욱 修鍊되고, 改造되어 더욱더욱 좋은 사람(文明한 國家의 一公民이 될 만한 德行과 學識, 技能과 健康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러한 바른 自覺과 굳은 決心과 오랜 修養을 가진 사람들의 團體이기 때문에 그 團體의 維持와 發展이 썩 잘되어 갈 것이외다. 이에 그네는 아직 個性이 固定되지 아니하고, 그 中 優秀한 少年男女를 뽑아 그 同盟에 加入케하여, 一面으로 그 同盟員의 數를 增加하며, 一面으로 그 團體의 人力과 材力을 充壯케하여 學校, 書籍出版 其他의 事業으로 一般民族에 크게 宣傳하는 同時에 次代의 後繼者인 子女에게 새 理想의 教育과 環境을 주어서 더욱더욱 新分子, 卽 改造된 個人의 數를 增加케 합니다.

이리하여 十年이나 二十年을 지나면 改造된 個人이 一, 二千人에는 達할 것이니, 그네는 모두 信用과 能力이 있는 人士이겠기 때문에 社會의 樞要한 모든 職務를 分擔하게 되어 自然 全民族의 中樞階級을 成하게 될 것이요, 이리 되면 自然淘汰의 理로 舊性格을 가진 者는 漸漸 社會의 表面에서 淘汰되어 소리 없이 伏하게 되고, 全民族은 이 中樞階級의 健全한 精神에 風化되어 歲月이 가고 世代가 지날수록 民族은 더욱 새로와져 五十年이나 百年後에는 거의 改造의 大業이 完成될 것이외다.

이렇게 意識的이요, 組織的인 方法은 아직 歷史上에 前例가 없거니와, 前에도 말한 바와 같이 무릇 民族改造라 할 만한 事業은 다 이와 類似經遇로 되는 것이니, 革命이라든지, 維新이라든지가 新階級의 出現으로 됨을 보아서 알 것이다.

이제 우리 朝鮮民族에게 民族改造의 原理를 應用하여 봅시다.

첫째 朝鮮民族의 民族性의 缺點은 그 根本의 性格에 있는 것인가, 또는 附屬的 性格에 있는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할 必要가 있습니다. 問題의 決定되기를 따라 우리의 民族改造事業의 難易가 決定될 것이외다. 그런데, 이 問題를 決定하려면 르 봉博士의 이른바와 같은 朝鮮民族의 根本性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이외다.

우리 民族에 對한 가장 낡은 批評은 山海經에 나온 漢族의 批評이니,

「君子國在其北衣冠帶劍食獸使二文虎在傍其人好讓不爭³⁾」이라 하였고, 이에 대한 郭璞의 讚에.

「東方氣人國有君子薰屏是食彫虎是使雅好禮讓禮委論理⁴⁾」라 하였읍니다. 우리 民族이 異民族에게 처음 준 印象이 「君子」외다. 孔子도 「君子居之라」하여 自國民의 腐敗無道함에 憤慨하여 我族中에 오려 하였읍니다. 「其人好讓不爭」이라 한 것으로 君子인 것을 說明하였읍니다. 好讓不爭이란 것을 現代의 觀念으로 分析하면 寬大, 博愛, 禮儀, 廉潔, 自尊 등이 될 것이외다.

다시 이 네가지 德目を 한데 뭉치면 郭璞의 山海經讚에 있는 바와 같이 「仁」이 될 것이외다. 그런데 이를 朝鮮民族의 歷史에 參考해 보건대, 仁은 朝鮮民族의 根本性格인 듯합니다. 國際的으로도 일찍 남을 侵略해 본 일이 없고, 또 外國人을 甚히 愛敬하는 性質이 있으며, 民族끼리도 殘忍強暴한 行爲는 極히 적읍니다. 殺人強盜 같은 殘忍性의 罪惡은 現今에도 甚히 적다 합니다.

朝鮮처럼 寬大한 者는 他民族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或 누가 自己에게 侮辱을 加하면 흔히 絳絳 웃고 구태여 報復하러 아니합니다. 外國人은 或 이를 怯懦한 까닭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絳絳 웃는 그의 心理는 一種 寬恕와 自尊이외다. 그래서 朝鮮人은 怨讎를 記憶할 줄 모릅니다. 곧 잊어버립니다. 甚至於 自己의 血族을 죽인 者까지도 흔히는 容恕합니다.

그러므로 朝鮮의 傳統이나 文學에 報讎에 關한 것은 極히 적고, 日本民族과 같이 이를 한 美德으로 아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음에 朝鮮人은 愛人하는 性質이 많습니다. 처음 對할 때에는 좀 똑똑하고 찬 듯하지만은 속맘에는 極히 人情이 많습니다. 十數年前까지 舍廊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 알거나 모르거나 宿食을 주어 歡待합니다. 집에는 來客을 爲하여 항상 客糧과, 客饌과, 客草를 準備하고, 家族의 먹는 것은 薄하여도 客에게는 맛나는 것을 주며, 家族은 좀 차게 자더라도 客室에는 불을 많이 땁니다. 옛날의 朝鮮家庭의 하는 일의 半은 실로 「接賓客」 이었습니다.

禮儀를 重히 여기는 것은 吾族의 本來의 特性이외다. 君子國이라는 稱號부터도 禮儀를 聯想케 하거니와 「衣冠帶劍」 이라든지, 「好讓不爭」 이라든지 하는 말에도 禮儀를 聯想케 합니다. 또 東方朔神異經에,

「東方有人男皆縞帶玄冠女皆采衣恒恭坐而不相犯相譽而不相毀見人有患投死救之蒼卒見之好癡名曰善人C」 이라 한 것이 있음을 보아 어떻게 古代 吾族의 禮儀를 崇尚한 것을 알 것이외다. 또 後漢書에 夫餘人의 禮儀 있음을 評하여

「飲食用俎豆會同拜爵洗爵揖讓升降D」 이라 하였고, 또 三國志에 馬韓을 評하여, 「其俗行者相逢皆住讓路B」 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禮儀를 崇尚하는 本性이 있었으므로 李朝의 黨爭도 거의 禮文의 解釋이 그 原因이 되었으며, 現今의 朝鮮人도 禮儀를 崇尚하는 風이 많으니, 우리 나라를 禮儀之邦이라 한 것은 참으로 適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禮儀란 무엇이요, 規律에 服從하여 秩序를 지키는 것이외다. 規律 밑에는 極히 順服한다는 뜻이외다. 禮儀란 곧 義외다.

또 朝鮮人은 廉潔하였읍니다. 또 三國志에 「其人性愿慤少嗜慾有廉恥 E」 라 하였습니다. 政丞으로서 客主집 한 방을 빌려서 留宿한 이가 있고, 決코 남을 爲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 物質的報酬를 論하지 아니하였읍니다. 金錢을 貪하는 것은 朝鮮人의 가장 賤히 여기던 바이외다. 只今은 世降俗末하여 金錢收入의 多少도 人物을 評價하게 되었지만은, 옛날 朝鮮人은 金錢이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러워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精神은 아직도 남아서 무슨 일이나 月給이라든지 報酬를 論하기를 恥辱으로 압니다.

또 朝鮮人은 甚히 自尊心이 많습니다. 近代에 一部 拜明輩가 漢族의 文化에 沈醉하여 崇禎紀元後를 쓰면서도 一般民衆은 漢人을 「되놈」 이라 하고 「오랑캐」 라 하여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者로 여기도록 것처럼 自尊心이 많습니다. 어떤 美國人이 ○○事件後에 救濟米를 얻으려 온 朝鮮人들이 모여 선 것을 박은 寫眞을 보고 아아 朝鮮 사람은 尊大하다고 評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果然 우리 사람의 얹음얹음, 걸음거리, 말하는 모양, 어떻게나 尊大합니까. 「짐값다」 는 말은 우리가 사람의 品格을 稱讚하는 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외다.

또 自尊이라는 觀念中에는 自主라 獨立이란 觀念이 恒常 附隨합니다. 歷史를 보면 朝鮮에는 일찍 封建制度가 施行되어 본 일이 없읍니다. 三韓時代나 三國初에도 無數한 小國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다 完全한 獨立國이었고, 大國의 滅함을 받을지언정 그 附屬은 아니 되었읍니다. 唐과 新羅의 關係 같은 것은 一種 外交의 政策關係요, 新羅가 唐의 支配를 받은 일은 없었으며, 李氏朝鮮時代에도 名義上 明·淸兩朝의 正朔을 받았다 하나, 그것은 一片의 形式이요, 그 事實上 支配를 받은 일은 없었읍니다.

그리고 一般民衆의 生活을 보더라도 獨立·自主의 氣風이 많습니다. 朝鮮에는 一人의 支配下에 萬人이 服從하는 大家族制나 農奴制는 施行된 적이 없었고, 조그마한 집일망정 各各 제 집에서 제가 벌어 먹기를 좋아합니다. 只今도 그 氣風이 남아 利益이 많은 남의 雇傭보다도 利益이 적은 獨立한 營業을 좋아합니다. 이 自主를 好尙하는 氣風은 朝鮮人의 生活의 各方面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山海經은 우리 朝鮮 사람을 그럴 때에 오직 이 仁한 方面만 볼 뿐이 아니요, 또 그 武勇한

方面도 보았습니다. 「衣冠帶劍」이라 하니, 그는 점잖은 衣冠을 하고, 武勇의 劍을 찻습니다. 이뿐 아니라 後漢書에도 우리를 評하여, 「夫餘其人麤大疆勇而謹厚不爲寇鈔.... 行人無晝夜好歌吟音聲不絶」이라 하였고, 또 東沃沮를 記하여, 「.....人性質直强勇便持予戰.....」이라 하였습니다. 또 滿人이 우리 民族을 부르는 가장 最古의 稱號로서의 夷字는 双大双弓이라 하여, 大弓을 가지고 다니는 者라는 뜻이외다. 이렇게 우리 民族의 本性은 武勇하였습니다. 오직 後漢書에 말한 바와 같이 「謹厚不爲寇鈔」하여 麤大疆勇하면서도 君子國이란 稱讚을 듣는 것입니다.

다음에 朝鮮人の 性質은 基히 快活합니다. 여기 引用한 글에도 「好歌吟音聲不絶」이라 하였으니, 그네의 사는 곳에 音樂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요. 三國志에 馬韓의 俗을 評하여, 「常以五月田竟祭鬼神晝夜酒會群會聚歌舞舞輒數十人相隨蹋地爲節 10」이라 하고, 또 後漢書에 長韓을 評하여, 「俗喜歌舞飲酒鼓瑟」이라 하고, 三國志에 高句麗를 評하여, 「其民喜歌舞國中色落暮庭夜男女群聚相就歌戲」라 하였습니다. 이는 滿人이 古代의 우리 民族을 評한 것이어니와 우리 自身이 보더라도 우리는 攄 快活한 民族이외다.

朝鮮人은 樂天的이라 그는 웃을 줄을 알되, 울거나 努하거나 陰沈한 態度를 取할 줄을 모릅니다. 朝鮮人처럼 弄談과 장난을 좋아하는 者는 드물 것이외다.

朝鮮人은 決코 帝國主義的 軍閥主義的國民은 되지 못합니다. 宗教的으로 우는 民族, 哲學的으로 陰沈하게 思索하는 民族도 되지 못합니다. 朝鮮人은 現實的, 藝術的으로 웃고 놀고 살 民族이외다. 그러면 朝鮮民族의 根本性格은 무엇인고. 漢文式觀念으로 말하면 仁과 義와, 禮와, 勇이외다. 이것을 現代式用語로 말하면 寬大, 傳愛, 禮義, 禁慾的(廉潔), 自尊, 武勇, 快活이라 하겠습니까. 具體的으로 말하면 朝鮮民族은 남을 容恕하여 怒하거나 報復할 생각이 없고, 親舊를 많이 사귀어 物質的利害觀念을 떠나서 愉快하게 놀기를 좋아하되 社交的이요, 禮儀를 重히 여기며 自尊하여 남의 下風에 立하기를 싫어하며, 物慾이 淡한지라 齷齪한 맛이 적고 悠長한 風이 많으며, 따라서 商工業보다 文學, 藝術을 즐겨하고, 恒常 平和를 愛好하되 一旦 不義를 보면 「投死救之」의 勇을 發하는 사람이외다.

이제 그 反面인 缺點을 보건대 寬大·博愛하므로 現代國民이 가지는 排他的愛國心을 가지기 어려우니, 그러면서 四千年來 能히 國家를 維持한 것은 그의 自尊心과 武勇性이 있음이외다. 그의 性이 廉潔한지라 異民族의 領土를 侵略할 野心이 없을뿐더러, 致富之術이 拙하여 저 三國時代를 보더라도 美術의 發達은 當時 世界에 冠이 될만하면서도 商工業의 發達은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또 禮儀를 崇尚한는 反面은 眞情의 流露를 沮害하여 虛僞에 흐르기 쉬우며, 自尊心이 많음은 指導者의 指導에 順從함을 絶對要件으로 하는 鞏固한 團體의 組織을 못하게 하는 原因이 되고, 그의 樂天的이요, 現實的인 本性은 그로 하여금 彼岸의 樂園을 求하는 宗教나 深奧한 哲學的 思索이나 科學的探究에 對한 努力을 輕視하게 하였습니다. 朝鮮民族을 今日의 衰頹에 끌은 原因인 虛僞와, 懶惰와, 非社會性과, 및 經濟的衰弱과 科學的不振은 實로 이 根本的民族性의 半面이 가져온 禍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民族性 그것이 惡한 것은 아니니, 이것은 우리 民族의 타고난 天稟이라, 어디까지든지 發揮하여야 할 것이외다. 그러므로 우리의 改造할 것은 朝鮮民族의 根本的性格이 아니요, 르 봉 博士의 이른바 附屬的性格이외다. 그러할진댄 우리의 改造運動은 더욱 可能性이 豊富하다 할 것이외다.

이에 나는 民族性의 改造 可能하다 함과 特히 朝鮮民族性의 改造는 可能할뿐더러 容易하다 함을 斷言합니다.

民族性의 改造는 얼마나한 時間을 要할까

民族性의 改造는 可能하다 함과 特히 朝鮮民族性의 改造는 容易하다 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 始作하여 언제나 그 많은 民衆을 다 改造해 놓을까, 언제나 二千萬이나 되는 民族을 改造하여 文明하고 富強한 生活을 하게 할까 함을 생각하면 누구나 茫然한 생각이 날 것이외다. 그래서 或은 무슨 지름길이 없을까, 이렇게 힘드는 길 말고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길이 없나 하고 무슨 異蹟的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는 個人이나 民族이나 勿論하고 不幸한 境遇에

處한 者의 흔히 가지는 心理외다. 그리고 이는 病的心理이외다. 假令, 極히 가난한 사람이 富하기를 願한다 하면 그는 刻苦와 勤勉으로 蓄積하리라는 생각보다도 무슨 僥倖으로 猝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或은 金鑛을 찾으러 다니고, 或은 米豆를 하러 다닙니다.

그렇지마는 金鑛이나 米豆로 所願하는 猝富가 되는 者는 萬에 하나도 드문드문 일이외다. 나머지 九千九百九十九人은 一生을 虛慾만 따르다가 마침내 貧한 대로 죽고 말게 됩니다. 그네가 勤勉蓄積의 길을 잡았다면 一生에 먹으리만한 財産은 다 가질 수가 있었을 것이어늘. 그러나 猝富는 或 이러한 僥倖으로 될 수 있지만은 學者나 偉人은 決코 僥倖으로 될 수 없고, 오직 刻苦와 勤勉으로만 되는 것이외다. 그런데 民族의 盛衰는 猝富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요, 學者나 偉人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외다. 제가 道德을 닦고, 知識을 배우고, 個人과 社會의 生活을 改良하고 富를 蓄積하므로 되는 것이지, 決코 남의 도움이나, 一時的 僥倖으로 되는 것이 아니외다. 講和會議나, 國際聯盟이나, 太平洋會議는 朝鮮人의 生活改善에는 아무 關係가 없는 것이외다. 設使, 朝鮮人의 生活의 政治的獨立에 달렸다 하더라도 그 政治的獨立을 國際聯盟이나 太平洋會議가 小包郵便으로 付送할 것이 아니외다. 政治的獨立은 一種 法律上手續이니, 이는 獨立의 實力이 있고, 時勢가 있는 때에 一種의 國際上의 手續으로 承認되는 것이지, 運動으로만 될 것이 아니외다. 우리는 過去의 쓰라린 經驗으로 이 貴한 眞理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救援을 우리 밖에서 求하는 愚를 反覆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目的을 僥倖에서 達하려는 釋를 反覆하지 아니할 것이외다. 이제부터 우리가 根本的으로 할 일은 正經大道를 取한 民族改造요, 實力養成이외다. 朝鮮人이 各個人으로, 또 一民族으로 文明한 生活을 經營할 만한 實力을 가지게 된 後에야 비로소 그네의 運命을 그네의 意見대로 決定할 資格과 能力이 생길 것이니, 그때에야 同化를 하거나, 自治를 하거나, 獨立을 하거나, 또 世界의 意義를 가진 大革命을 하거나, 그네의 意思대로 自處할 것이외다. 그러므로 朝鮮人의 命運改善에는 決코 民族改造를 除한 外에 아무 지름길도 없는 것이외다. 다시 말하면 唯一한 지름길이 곧 民族改造이외다. 부질없이 다른 僥倖의 지름길을 찾다가는 한갓 歲月만 더 虛費하고 힘만 더 消費할 뿐이외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 幼穉하고 못생긴 「僥倖」을 바라는 생각을 버리지 아니할 것인가.

이제부터 本題에 들어가 朝鮮民族改造에 걸리는 時間을 研究해 봅시다.

研究의 順序上 個人의 性格改造上에 걸리는 時間을 생각해 보는 것이 必要하겠습니다. 民族改造란, 結局은 그 民族을 組成한 各個人의 改造의 問題이니까.

一個人의 性格改造의 紀元은 改造해야겠다는 自覺의 瞬間에서 始作한 것이외다. 自覺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新性格의 根本이 될 思想을 찾을 것이니, 그것을 찾는 동안이 한참 될 것이외다.

흔히 생각하기를 思想만 찾아 내서 제 것을 만들면 性格은 改造될 것으로 알지마는 決코 그런 것이 아니외다. 毋論 思想을 찾는 것이 根本이 되지마는 思想은 建築으로 말하면 그 設計圖에 不過한 것이외다. 設計圖만 있다고 집이 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新思想만 있다고 新性格이 되는 것은 아니다.

思想이란 理智的이외다. 性格이란 情意的이외다. 思想은 理智的인 고로 一瞬間에 理解할 수 있지만은, 性格이란 情意的의 習慣인 故로 그것을 造成함에는 徐徐한 蓄積作用을 要求하는 것이외다. 假令, 부지런해야겠다는 思想을 얻는다 합시다. 부지런이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 일어나서는 꼭꼭 時間을 定해 놓고 그날에 하기로 豫定한 職務를 다할 것 등을 內容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理智로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理智를 情意的의 力으로 옮겨 實行하고, 實行하여 一日, 二日, 一年, 二年, 實行하는 동안에 그만 堅固히 부지런하게 되어야 이에 비로소 부지런한 性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부지런한 性格을 가지려면 적어도 一個年의 努力이 必要하다 합니다. 世上에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知識을 가지 者가 많지마는 부지런한 性格을 가진 者는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實行과 努力으로써 부지런한 習慣을 이루지 아니한 까닭이외다.

부지런이란, 一例를 들어 性格造成의 經路를 說明하였거니와, 무릇 性格의 造成은 知識에서 實行, 反復實行을 通하여 習慣을 成하는 經路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民教育의 中心인, 性格造成의 教育인 修身教育과 訓練은 一言以蔽之하면 선량한 習慣을 造成하는 것이지,

道德의知識을 注入하는 것이 아니외다. 各學校에서는 아직 이 「善良한 習慣造成」이라는 眞意를 理解하지 못하여 修身教育이란 것이 오직 道德의知識을 注入함으로써 滿足하는 듯합니다. 倫理學者가 決코 善良한 性格者가 아니외다. 假令 清潔, 秩序, 正直, 勤勉, 活潑 같은 普通教育에서 力說하는 德目を 봅시다. 아무리 清潔이 좋다는 理論을 하더라도 나라다 양치하고, 洗手하고, 沐浴하고, 掃除하고, 때물은 옷 안 입는 것을 反復實行하여 그것이 習慣이 되지 아니하면 性格에는 아무 補益이 없을 것이외다.

또 精神의인 活潑의 氣象도 實地로 여러 사람 사이에 나셔서 뛰여, 제 재주와 기운을 발표하고, 滿人中에 나셔서 큰소리로 제 뜻을 主張하는 일을 여러 번 反復하여 그 習慣을 이루는 實行이 없고는 活潑이란 것이 性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외다.

이렇게 一個人이 어떤 思想으로서 自己의 性格을 改造함에는 反復實行하여 習慣을 造成하는 時間이 必要한 것이니, 德目の 種類를 따라 그것이 性格이 되는 時間에 各各 長短이 있을 것이외다. 假令 清潔의 習慣이나, 物各有所 事各有時의 秩序의 習慣 같은 單純한 性質의 것은 意識의으로 一年만 努力하면, 卽 反復實行하면 足할 것이로되 愛人如己라든지 忠誠이라든지, 言行一致라든지 하는 高尚하고 複雜한 德目の 性格을 이루도록 하기에는 一生의 反復實行으로도 오히려 不足할 것이외다. 孟子의 所爲 「七十從心所慾不踰矩 11」 라 함은 自己가 願하는 모든 德目이 七十年不斷의 努力과 實行에 모두 習慣을 이루어 모두 自己가 願하는 德目이 習慣을 만든다는 점이외다. 「言則易行難」이란 이러한 뜻이니, 個人의 人格의 力은 오직 이러한 모든 習慣에서만 發하는 것이지 知나 言에서 발하는 것이 아니외다

民族性的의 改造도 上述한 原理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그 改造되는 經路는 이러할 것이외다.

一 民族 中에서 어떤 一個人이 改造의 必要를 自覺하는 것

二 그 사람이 그 自覺에 의하여 改造의 新計劃을 세우는 것.

三. 그 第一人이 第二人의 同志를 得하는 것

四 第一人과 第二人의 第三人의 同志를 得하여 이 三人이 改造의 目的으로 團結하는 것. 이 모양으로 同志를 增加할 것

五 이 改造團體의 改造思想이 一般民衆에게 宣傳되는 것

六 一般民衆 등에 그 思想이 討議의 題目이 되는 것

七 마침내 그 思想이 勝利 하여 그 民衆의 輿論이 되는 것. 즉 그 民衆의 思想이 되는 것

八 이에 그 輿論을 代表하는 中心人物이 나서 그 思想으로 民衆의 生活를 指導하는 것

九 마침내 그 思想이 絶對的眞理를 作하여 討議圈을 超越하여 傳染力을 生하는 것

十 마침내 그 思想이 理知의 城을 脫하여 正義的인 習慣의 城에 入하는 것을 通過하여 드디어 民族性改造의 過程을 完成하는 것이외다

第一人의 自覺이 생기므로부터 第三人을 얻어 團體를 成하기까지가 가장 困難한 時代요, 또 其間에 一定한 限界가 없는 時代외다. 그러나 한번 團體를 成하여 計劃이 確立하기만 하면, 이에 改造事業의 基礎는 成하는 것이니, 이로부터 一種有機的의 生長의 經路를 밟아 長成하는 것이외다.

다음은 宣傳時代이니, 여기 두 가지가 있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 나가는 것이라 그 中에 하나를 缺할 수도 없는 것이외다. 두 가지란 무엇이뇨, 同志의 結合과 思想의 宣傳이외다. 많은 同志를 얻으려면 思想의 宣傳이 根本이 되고, 思想의 宣傳을 힘있게 하려면 또한 많은 同志가 필요한 것이니, 同志가 많이 있어야 입이 많고, 손이 많고 몸이 많고 돈이 많아 宣傳의 方面이 더욱 넓어질 것이요 동시에 많은 同志의 結合한 團體 그, 물건이 모든 것 中에 가장 有力한 具體的宣傳機關이 되는 것이외다

그런데 여러 千萬의 民衆에게 一種의 重要하고 複雜한 思想을 宣傳하는 것도 꼭 많은 努力과 歲月을 要하는 일이요, 그 民衆의 輿論의 指導者가 될 만한 數의 同志를 結合하는 것이 더구나 많은 歲月과 努力을 要할 것이외다. 改造의 對象이 되는 民衆의 數가 많을수록 歲月은 더 오랏 것이요, 그 民衆의 文化의 程度와 腐敗한 程度의 如何를 따라서 또한 事業의 難易가 決定될 것이며, 기타 實力의 大小, 外國의 事情등 여러 가지 複雜한 事情으로 그 要求하는 바 努力과 歲月이 各各 다를 것이외다. 朝鮮内地의 人口 一千七百萬, 이를 저 中國의 그것에 비기면 二千五分之一強에

不過합니다. 또 血統과 言語와 性情的 點으로 보더라도 朝鮮人은 極히 單純하여 저 中國이나 印度와 같은 많은 差別이 없으며 宗教나 階級도 統一的生活을 하는 障礙가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中國이나 印度의 民族改造는 심히 어려울 줄 압니다. 차라리 中國이라, 印度라 하여 그것을 各各 一民族으로 보고 改造事業을 하는 이보다 그것을 惑은 地方 惑은 言語 惑은 宗教 등을 標準으로 여러 部分에 나누어서 제가끔 改造事業을 行하는 것이 便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이 朝鮮은 極히 單純한 一民族으로 性情과 言語와 生活의 目的이 單一하므로 改造하기에는 가장 根本的인 便宜되는 文字로 보더라도 朝鮮文字는 印刷의 不便은 있되 學習의 容易가 있어 그 便利함이 比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便宜를 基礎로 하고, 改造에 要하는 時間을 概算하여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더디게 될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이외다. 그러면 改造의 團體가 생기므로부터 그 思想이 全民族의 輿論의 思想이 되기까지 大略 얼마나한 歲月을 要할까

이것을 決定하는 데는 먼저 全民族의 輿論을 支配하기에는 어떠한 條件이 必要할까 하는 問題를 決定함이 必要하외다. 어떤 思想이 全民族의 輿論을 支配하기에 가장 決定的인 條件은 그 民族의 知識階級の 半數以上— 더욱 正確하게 말하면 그 民族의 民族的生活의 모든 機關을 運轉하는 階級の 半數以上이 이 思想의 贊成者됨이외다. 그네가 만일 思想의 所有者일 뿐만 아니요, 아울러 實行者이면 더욱 有力하고 各個의 實行者뿐이 아니요, 이것으로 目的한 한 團體로 몽친 것이면 比할 데 없이 有力하게 것이외다.

그런즉 우리의 民族的生活의 모든 機關을 運轉하는 知識階級은 大概 얼마나 하면 될까요?

民族生活의 모든 機關이라 하면 政治機關, 經濟機關, 教育機關, 各種의 民族社社 (Free Association), 宗教機關, 其他 學術, 藝術 등 모든 것이외다. 더 仔細히 말하면 政治家, 官士, 商工業者, 教師, 牧師, 學者, 文士], 藝術家, 新聞記者, 地方有志등을 知識階級이라 하겠습시다. 이 階級 民族의 文化程度가 向上될수록 全民族에 대한 比例가 클 것이지만, 每 千名에 一人씩 잡으면 足히 文明한 民族生活을 經營할 수 있으리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全人口을 千七百萬치고 萬七千人, 三十年後에 二千萬이 될 셈쳐서 二萬人 卽 二萬人의 代表가 될 만한 知識階級이 생기면 朝鮮民族은 넉넉히 文明하고 富強한 民族生活을 經營할 수 있는 것이니, 그 中에서 一萬人以上의 改造者를 가진다 하면 改造思想으로 하여금 全朝鮮民衆의 輿論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외다.

그런즉 結局은 얼마나한 歲月이면 一萬人의 改造同盟者를 얻을까 하는 問題외다.

만일 第一년에 二千人을 얻는다 하고 各人 每年에 一人의 同志者를 求한다면, 第二年에는 四千人이 될 것이요, 第三년에는 八千人이 되어 二를 公差로 하는 幾何級數로 增加될 것이니, 第七년에 一千二百八十인이 되고, 第九년에는 五千二百二十인이 되고, 第十년에는 一萬二百四十인이 될 것이외다. 思想의 傳播가 幾何級數的이라 함은 社會心理學의 한 法則이외다. 그러나 同志의 選擇을 極히 嚴重히 할 것, 同志中에 死亡, 除名, 其他의 事故가 있을 것 등을 酒量하여 넉넉히 잡고, 그 時間을 三倍로 하여 三十年에 一萬人을 얻는다고 보면 가장 確實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惑, 中間에 內部的 瓦解나 政府의 解散命令의 厄을 當함이 없을까 하는 憂도 있으려니와, 會員의 選擇의 慎重과 規則의 嚴守, 特히 規則을 犯하는 者는 한 번도 容恕함 없이 除名하는 方法으로 內部的 瓦解를 防杜할 수 있고, 또 絶對的으로 政治와 時事에 關係함이 없고, 오직 各個人의 修養과 文化事業에만 從事하므로 政府의 解散을 當할 念慮가 없을 것이외다. 그러므로 規則의 嚴守와 政治와 時事에 不干涉함과 이 두 가지로 이 改造團體의 生命을 永遠히 할 수 있을 것이외다.

이렇게 三十年에 一萬人의 改造同盟자를 얻었다 하면 어떠한 結果가 생길까.

그네는 道德的으로 人格의 完成을 目的삼아, 惑은 三十年, 惑은 二十年, 惑은 十年을 除名을 當하지 않고 修養한 者니, 虛位도 없고, 瀨惰도 없고, 巧詐도 反覆도 없고, 怯懦도 없고, 眞實하고, 勤勉하고, 信義 있고, 勇斷 있고, 社會性 있는 一萬일 것이외다, 또 그네는 知的으로 人格의 完成을 目的한 者니 一種以上의 學術이나, 技藝를 修學하였을 一萬人일 것이외다, 또 그네는 體育으로 人格의 完成을 目的한 者니 人의 職務를 堪當할 만한 健剛한 體格을 가진 一萬人일 것이외다. 또

그네의貯蓄으로生活의經濟的獨立을目的한者니,自己의衣食住에는근심이없는一萬人일것이외다.그리고그네는自己個人的改造만目的하지아니하고,全民族의改造도目的한者이기때문에-이神聖한主義로數十年間修養하고努力한者이기때문에公益성과團結心이풍부할것이외다.이러한性格을가진사람들은自然히社會의各方面에서樞要한地位를占領하였을것이아닙니까

그뿐더러그네는文化事業을目的한者이기때문에만일每人이平均二十圓씩을내어여러가지사업의基金을만들었다하더라도萬人이며二十萬의基金을가졌을것ियो.만일學校나其他特別한事業의新設을위하여每人平均百圓씩을낸다하면百萬圓을얻을것이외다.이에비로소教育事業이나,出版事業이나,其他의民衆教育機關을創設도하고維持도할實力이생길것이외다.

그러나萬名을얻음이民族改造의完成이아니라,이에民族改造의基礎가確立함이니정말民族改造事業의本業은이에서시작할것이외다.卽이로부터各部會는勿論이요面面村村에學校와講習所와賭書縱談所와娛樂場,體育場을세우고,各種의大學과專門學校와圖書館博物館,學術研究機關등을세우고書籍出版事業을盛大히하며美術館,演劇場,會館,俱樂部같은것을三十道各地에세우며또産業方面으로그러하여朝鮮民族으로하여금道德的으로나,知識的으로나經濟的으로나體格으로나,社會의各種事業으로나가장文明하고가장優秀한民族을만들어안으로는幸福을누리는人民이되게하고,밖으로는世界文化에貢獻하는民族이되게함인改造事業의完成이라할지니,그러므로이는十五年,百年,二百年의永久的事業이외다.이事業에는끝이있을것이아니라,朝鮮民族으로하여금永遠히새롭게,젊게하기위하여永遠한改造事業을永遠히繼續할것이외다.나는민거니와이改造의原理와方法은오직朝鮮에만適用할것이아니요,실로天下萬民에게適用할것이니,中國人の復活도오직이길을通하여야얻을것이외다.그네가革命을百千番하고孫文,顧維均,王正延이아무리革命과外交를잘한다고하더라도中國人の救濟는오직民族改造運動者에게서만찾을것이라합니다.

[下]

改造의內容

나는上篇에서民族改造의意義를說하고,中篇에서民族改造의可能을說하였습니다.그러하는中에自然히改造思想의內容과方法도斷編的으로말하였습니다.그러나民族을改造한다니어떤모양으로改造한단말인가하는改造思想의內容과,그改造를어떠한方法으로하겠는가하는方法에對하여多少具體的으로系統的으로말할必要가있습니다.其實上,中兩篇에말한것은지금부터말하는것의序論이라할만한것이외다.

그러면내가말하는民族改造란朝鮮民族을어떤모양으로改造하잔말인가.이것을說明하는데는먼저否定的方法을取하여民族改造란이것도아니요,저것도아니라는것을說明하는것이가장便하리라고생각합니다.

世界思潮의影響을입어近來朝鮮思想界의民族이나社會에대한思想分類의範疇가흔히民主主義對帝國主義,資本主義對勞農主義의二雙에分한듯합니다.그래서各個人의思想傾向을論할때에도이것을標準으로하는모양이외다.그러나,내가말하는民族改造主義는이範疇中에어느것에屬한것도아니요,또어느것을특히排斥하는것도아니외다.

이改造主義者中에는帝國主義者,資本主義者도있을수있는同時에民主主義者,勞農主義者도있을수있는것이외다.

이런것은政治組織에관한것이니,改造主義에는아무相關이없는것이외다.改造主義者의唯一한主張은朝鮮인이帝國主義者가되든지,民主主義者가되든지,또는資本主義者가되든지,勞農主義者가되든지를勿問하고,오직그무슨「……者」될사람의人生을改造해야한다함외다.다시말하면現在朝鮮의性格을改造한뒤에야健全한帝國主義者도될수있고,

民主主義者도 될 수 있고, 勞動主義者나 資本主義者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改造가 없이는 아무 改造主義者도 될 수 없이 오직 劣敗者될 뿐이라 함이외다. 信用할 만한 德行, 職務를 堪當할 만한 學識이나 技能, 自己의 衣食住를 얻을 만한 職業의 能力, 이런 것이 없어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改造主義는 사람의 바탕을 改造하여, 그 主義가 무엇이든 職業이 무엇이든지 能히 文明한 一個人으로 文明한 社會의 一員으로 獨立한 生活를 經營하고 社會的 職務를 負擔할 만한 誠意와 實力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함이외다.

또 改造主義는 主義自身이 어떤 宗教도 아니요, 또 既成의 어떤 宗教에 特別히 加擔하는 者도 아니외다. 同時에 어떤 宗教를 排斥하는 者도 아니외다.

耶蘇敎人도 可, 天道敎人도 可, 儒敎人도 可, 無宗教人도 亦可외다. 오직 改造된 者라야 耶蘇敎人이라도 참말 耶蘇敎人이 되고, 佛敎徒라도 참말 佛敎徒가 될 것이외다.

다음에 이 改造主義는 政治에 對하여 아무 干涉이 없습니다. 이 主義者中에는 政治家도 나리다, 改造主義로는 同志인 者로도 政治的 意見으로는 몇 가지로도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改造主義의 團體自身은 永遠히 政治에 參與할 것이 아니외다. 그는 永遠히 오직 改造主義의 團體로 民衆敎育事業을 爲하여서만 힘쓸 것이외다.

그러면 이 改造主義의 內容은 무엇인가. 각 사람으로 하여금

(一) 거짓말과 속이는 行實이 없게,

(二) 空想과 空論은 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 義務라고 생각하는 바를 부지런히 實行하게,

(三) 表裏不同과 反覆함이 없이 義理와 許諾을 鐵石같이 지키는 忠誠되는 信義있는 者가 되게,

(四) 姑息, 浚巡 등의 怯儒를 버리고 옳은 일, 作定한 일이어든 萬難을 무릅쓰고 나가는 者가 되게,

(五) 個人보다 團體를, 즉 私보다 公을 重히 여겨, 社會에 대한 奉仕를 生命으로 알게(이상 德育方面),

(六) 普通常識을 가지고 一種以上の 專門學術이나 技藝를 배워 반드시 一種以上の 職業을 가지게(以上 知育方面),

(七) 勤儉貯蓄을 向하여 生活의 經濟的 獨立을 가지게(以上 經濟方面)

(八) 家屋, 衣食, 道路 등의 清潔等, 衛生의 法則에 合致하는 生活과 一定한 運動으로 健康한 體格을 所有한 者가 되게, 함이니, 이것을 다시 줄여 말하면 德體·知의 三育과 富의 蓄積, 社會奉仕心의 涵養이라할 수 있습니다. 朝鮮民族中에 이러한 사람이 많게 하여 마침내는 朝鮮民族으로 하여금 참되고, 부지런하고, 信義 있고, 勇氣있고, 社會的 團結力 있고, 平均하게 富裕한 民族이 되게 하자함이외다. 不幸히 現代의 朝鮮人は 이와 反對이외다.

虛偽되고, 空想과 空論만 즐겨, 懶惰하고 서로 信義와 忠誠이 없고, 臨寫에 勇氣가 없고, 利己的이어서 社會奉仕心과 團結力이 없고 극히 貧窮하고, 이런 意味로 이 改造는 朝鮮民族의 性格을 現在의 狀態에서 正反對方面으로 變換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改造主義者가 생각하기에 現代의 朝鮮民族性을 그냥 두면 個人으로나 民族으로나 劣敗者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를 救援하는 것은 오직 그 反對方向을 가리키는 改造가 있을 뿐이라 합니다.

이제 나의 말하는 民族改造의 根本은 懋實과 力行의 思想이외다. 위에 말한 여덟 가지도 통틀어 말하면 懋實과 力行 두 가지에 括約되는 것이외다.

懋實이란 무엇이나 거짓말을 말자, 속이는 일을 말자, 말이나 일에 오직 참되기를 힘쓰자 함이요, 力行이라하 함은 空想을 말자, 空論을 말자, 옳은 일이라고,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거든, 말하였거든, 곧 行하기를 힘쓰자 함이외다. 이 두 가지야말로 千萬古에 亙하여도 變할 수 없는 人類의 道德中의 根本道德이니, 實과 行이 없이 무슨 道德이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외다. 따라서 一個人의 生活의 成敗도 여기에 달리고, 一民族, 一國家, 其他 모든 團體의 成敗도 이 實과 行이 있고 없기에 달린 것이외다.

예컨대, 一個人에게 懋實力行의 德이 없다 함시다. 實이 없으며 그는 거짓말쟁이요, 詐欺師일 것이니, 世上은 그를 信用치 아니할 것이외다. 信用이 없으니 그는 商人도 못되고, 官吏도 敎師도

못되고, 洞里的 일이나, 家庭의 일조차 할 수가 없을 것이외다. 진실로 信用은 社會活動하는 者의 生命이니 信用은 道德의 結果中에 代表되는 者이외다.

또 行이 없으며 그에게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외다. 그는 工夫가 좋은 줄을 생각도 하나, 말도 하나, 實地로 工夫를 하지 아니하므로 學識이 있어질 날이 없고, 그는 勤儉貯蓄을 말도 하고 생각도 하나, 實地로 아무 事業도 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는 事業의 成功도 富의 蓄積도 없을 것이외다. 따라서 이렇게 信用 없고 事業 없는 자의 할 일은 僥倖을 바라는 投機事業이나, 挾雜이나, 詐欺나, 구걸이나, 또는 盜賊밖에 없을 것이외다.

現在 朝鮮人の 知識階級이란 者들의 行動을 보면 어떠합니까. 果然 두터운 信用을 가지고 正當한 職業에 盡粹努力하는 者가 얼마나 됩니까. 實業界면 米豆取人이나, 株式取人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鑛山 其他에도 各方面으로 僥倖을 바라는 挾雜의 釣名, 漁利의 事業에 從事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누워서 天桃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浮浪者의 人物이 많지 아니합니까

우리 中에 누가 큰 信用을 가진 者입니까. 누가 큰 事業을 이룬 者입니까

朝鮮民族이 懋實力行의 道德이 缺乏한 것은 지내온 歷史의 結果를 보면 알 것이외다. 내가 이렇게 함은 自己民族의 缺陷을 暴露하기를 즐겨 그러함이 아니라, 우리의 缺陷을 分明히 알므로 다시 살아날 길을 分明히 찾아내자 함이외다.

첫째, 朝鮮人끼리 서로 信用이 없습니다. 外國人은 信用하면서도 自國人은 信用치 못하는 奇現象이 있습니다. 멀리는 말 말고 李朝史를 보건대 서로 속이고, 서로 疑心하고, 猜忌하고 謀陷한 歷史라 하겠습니까. 李朝史와 같이 完人이 없는 歷史는 아마 드물 것이니 名望 있는 人物中에 臥病終身한 사람이 몇 사람이 못됩니다.

또 現在로 보더라도 朝鮮人中에 萬人の 信望을 一身에 集하였다 할 만한 人物이 없고, 모두 疑心을 받는 者들 뿐이외다. 이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서로 속이는 行實을 하기 때문에 서로 信用치를 못함이니, 이러므로 큰 團體의 事業을 經營할 수가 없는 것이외다. 團體의 事業은 커녕 서로 믿는 親舊도 얻기가 어려운 形便이외다. 또 團體로 보더라도 虛僞를 崇尚하는 惝恍을 免치 못합니다. 金錢으로나, 人物으로나, 아무 實力도 없으면서도 무슨 큰 實力이나 있는 듯이 虛張聲勢를 합니다.甚한 者는 表面에 드러내인 目的과 裏面の 眞動機가 判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世上에서도 이러한 團體를 信用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其實은 무슨 目的으로 생겼나」 또는 「저것이 저렇게 떠들지마는 몇 날이나 갈 터인가」 합니다.

또 民族的으로 보더라도 朝鮮民族은 결코 他民族中에 信用 있는 民族이 아니외다(……十五子省略……). 李朝末葉 몇 十年間의 韓國政府의 外交는 거의 전부 虛僞와 詐欺의 外交이었습다(……九十三子省略……).

여기서 民族信用을 失墜함이 多大합니다.

다음 西隣인 漢族에게 朝鮮民族의 信用을 失墜한 最大한 原因은 人蔘 장사와 假志士들이외다.

한 原因은 人蔘 장사와 假志士들이외다. 무릇 中國方面에서 商業을 經營하는 吾人은 十에 八, 九는 漢人을 속이기로 長技를 삼아 이것을 한 자랑으로 아는 傾向이었습다. 말뚱을 淸心丸이라고 팔았다는 말은 中國에 在한 朝鮮商人의 商略을 說明하는 말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詐欺를 代表함은 紅蔘 장사니, 그네는 滿洲蔘을 松蔘이라고 속이고, 十圓짜리면 百圓짜리라고 속여 참말 非人道的의 暴利를 貪합니다. 그 밖에 近年에 鴉片장사가 많이 생겨 이 亦是 政府를 속이고 人民을 속여 不義의 暴利를 貪하는 者인데, 넓은 中國에 朝鮮商人이라고 이러한 紅蔘 장사, 鴉片 장사뿐이니, 民族의 羞恥가 이에서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下級人民의 所爲라 하여 寬大한 漢人의 容恕하는 바도 되려니와 近年의 多數의 自稱 愛國志士, 亡命客輩가 中國의 高官과 富豪에게 哀乞하여 詐欺의 金品을 얻는 者가 漸漸 增加하여 民族의 信用을 아주 떨어뜨리고 만 것은 實로 慨嘆할 일이외다. 또 美國人의 吾族에 대한 信用은 어떠한가. 그 亦 말이 아니니, 朝鮮에 와 있는 宣教師들이 朝鮮人을 信用치 않는 것도 事實이어나 美國에 在留하는 同胞가 또한, 或은 惡意로, 或은 幼稚한 愛國心으로 거짓말과 속이는 일을 짐짓 行하므로 信用을 잃은 것도 많고, 그 中에도 上海를 經由하여 渡美하는 同胞들이 비록 事勢는 不得已하다 하더라도

國籍을 속여 거짓 旅行券으로 가며, 或은 財産을 속여 없는 學費를 있다고 하는 등으로 「朝鮮人은 거짓말쟁이」라는 失望하는 評을 하게 됩니다. 그보담도 知識階級인 人士들이 自國의 弱點을 안 보이려는 생각으로 흔히 거짓말을 하나니, 이것이 民族的信用을 잃는 가장 큰 原因이 되는 줄을 알면 누구나 다 戰慄할 것이외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의 民族的信用을 가장 잃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虛張聲勢하는 病일 것이외다. 아무 實力도 없으면서 소리만 크게 내는 虛僞일 것이외다마는 나는 이에 對하여 차마 仔細하고 具體한 例를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朝鮮人으로, 안으로 自己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밖으로 異民族間에도 信用을 잃어버렸으니, 이려고 어찌 살리오. 살게 되는 날은 朝鮮人끼리 서로 믿게 되고 異民族에게 信用을 받게 되는 날이니, 이러하려면 虛僞 없는 工夫를 始作하여 全朝鮮人으로 하여금 眞實한 人民을 만드는 수 밖에 없을 것이외다.

人類生活의 가장 安全하고 有利한 方式이 團體生活인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團體生活을 可能케 하는 根本動力은 그 단체의 各員間의 信賴니, 이것이 없으면 團體가 成立될 수가 없을 것이외다. 그런데 信賴는 어디서 생기나. 虛僞가 없고 眞實함에서 생기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一民族의 興亡盛衰는 그 民族의 各員의 眞實與否에 달린 것이니, 眞實하면 그 民族은 굳은 團結이 이루어지는 同時에 그 民族의 異族에게 받는 信用도 클 것이외다. 그러므로, 民族의 改造는 반드시 懋實에 始한다 함이니, 虛僞의 罪의 代價가 滅亡인 것과 德의 報償이 更生인 것을 따끔하게 自覺할지어다. 이렇게 個人으로나 民族으로 信用이 없는 데다가 모두 空想과 空論뿐이요, 實地로 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이루어 놓은 일이 없습니다. 近來에 名望있다는 人士를 例를 들어 보시오. 그네가 무엇으로 名望을 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中에 가장 名望이 많은 者가 愛國者입니다. 우리는 數十人의 名望 높은 愛國者들을 가졌거니와 그네의 名望의 基礎가 무엇인지를 찾아 보면 참으로 虛無합니다.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大部分은 虛名입니다. 그네의 名望의 唯一한 基礎는 떠드는 것과 監獄에 들어 갔다가 나오는 것과 海外에 漂泊하는 것인 듯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러한 말을 좀 仔細히 하고 싶지마는, 여러 가지 事情으로 그러할 自由를 못 가진 것이 恨입니다. 愛國者들뿐이 아니라, 지금 社會에 名士라는 稱號를 듣는 이들로 보더라도 그네의 이 名稱은 아무 事業의 根據가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名士의 一大特徵이 一定한 職業을 안 가진 것임을 보아 알 것이외다. 或 志士라 하여 그의 뜻이 可尙하다 하므로 名士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좋다고 稱讚하거니와 뜻이 좋다, 생각이 좋다 하는 것이 아무 稱讚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만일 그가 아직 修學中에 있는 青年이라 하면 그 뜻이나 생각 좋은 것이 將來의 좋은 事業할 것을 指示하므로 稱讚할 거리가 되지마는 紳士라든지 名士라는 말을 듣는 者로서 뜻이 좋다, 생각이 좋다는 것을 唯一한 稱讚으로 아는 것은 그 稱讚받는 者의 羞恥로 알 일이외다. 그런데 우리 名士는 흔히 뜻이 좋고, 생각이 좋다는 名士가 아닌지. 사람의 生命은 일에 있습니다. 일이란 職業이외다. 職業으로만 오직 사람이 제 衣食住를 얻는 것이요, 제가 맡은 國家와 및 社會의 職業을 다하는 것이니, 일을 아니하는 者는 國家나 社會의 罪人이외다. 그러므로 뜻이 좋고 생각이 좋은 것은 그것이 일로 實現되어 나오기 前에 아무 所用도 없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사람을 批評하는 標準은 그의 하여 놓은 일뿐이니, 이것을 두고는 다른 標準은 없는 것이외다.

或, 輾轉不遇라 하여 때가 돌아 오기를 기다린다 하고 浮浪者가 되는 것을 一種의 美德으로 알지마는 이것은 가장 잘못된 道德的批判이외다. 中庸에 이르기를 道者不可須臾離也라 하였거니와, 道라는 것은 人生의 職務라는 뜻이니, 人生이 살아 있는 동안 一時一刻도 그 職務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職務란 곧 職業을 社會의 見地에서 본 名稱에 不過하는 것이외다. 뜻이 좋고 아무 일도 아니하는 것은 空想이라 하고, 말만 좋고 아무 일도 아니하는 것을 空論이라 하나니, 空想과 空論은 懶惰한 자의 特徵입니다. 그런데 空想과 空論은 朝鮮名士의 特徵이외다. 이를 民族的으로 보더라도 朝鮮民族은 적어도 過去 五百年間은 空想과 空論의 民族이었습시다.

그 證據는 五百年 民族生活에 아무 것도 남겨 놓은 것이 없음을 보아 알 것입니다. 科學을 남겼나, 富를 남겼나, 哲學, 文學, 藝術을 남겼나, 무슨 자랑될 만한 建築을 남겼나, 또 領土를 남겼나, 그네의 生活의 結果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松虫이 모양으로 山의 森林을 말짱 벗겨먹고, 河川의 물을 말끔 들이마시고, 蕩子 모양으로 先代의 精神的, 物質的 遺産을 다 팔아

먹었을 뿐이외다. 義州에서 釜山, 會寧에서 木浦에 이르는 동안의 벌거벗은 山, 마른 河川, 무너진 堤防과 道路, 쓰러져 가는 城壘와 都會, 게딱지 같고 돼지우리 같은 家屋, 이것이 五百年 懶惰한 生活의 山 證據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眞實로 近代朝鮮 五百年史는 民族의 事業의 記錄이 아니고, 空想과 空論의 記錄이외다. 저 李氏朝鮮史의 主流인 黨爭도 또한 空想과 空論으로 된 것이니, 따라서 李朝史에 나오는 人物은 大部分 空想과 空論의 人物들이외다. 그래서 그네의 名望은 그 이루어 놓은 事業으로 傳하는 것이 아니요, 그네의 言論과 文章으로 傳할 뿐이외다. 만일 言論과 文章을 業으로 삼는 者라 하면, 言論, 文章만 世에 傳하는 것이 마땅하지마는 一國의 宰相이나 守令方伯으로서 그렇다하면 이는 眞實로 怪變이외다. 甚至於 壬辰, 丙子之役 같은 興亡이 攸關한 大事件에도 當時의 當國者들은 軍備나 產業에 努力하기보다 義理가 어떤등, 어느 大將의 門閥이 어떤등, 詩가 어떤등하여, 或은 義州의 行在, 或은 南漢의 蒙塵에 空想과 空論만 일삼았습니다. 眞實로 近代朝鮮史는 虛僞와 懶惰의 記錄이외다. 過去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現在의 朝鮮人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는 電燈, 水道, 電信, 鐵道, 輪船, 道路, 學校 같은 것 中에 朝鮮人이 손수 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教育을 떠들고, 產業을 떠들지마는 教育機關 中에 朝鮮人의 손으로 된 것이 三, 四의 高等普通學校가 있을 뿐이요, 產業機關이라고 資本을 總合하여도 一千萬圓도 못되는 구멍가게 같은 銀行 몇 개가 있을 뿐이외다. 이것이 모두 空想과 空論뿐이요, 行함이 없는 까닭이니, 朝鮮人은 언제까지나 이 懶惰를 繼續하려는가요. 만일 奮然히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命運은 滅亡 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므로 우리는 行하기를 力하자, 卽 力行하자, 누구나 한 가지씩의 職業을 가지자.

그리하여 그 職業을 부지런히 하자 하므로 民族改造의 根本則을 삼아야 합니다. 이에 나는 우리가 懋實과 力行으로써 民族改造의 根本則을 삼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 改造하려는 民族性의 根本을 實과 行에 두자 함이외다. 그 밖에 모든 道德은 이 實과 行에 基礎하여 建設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實과 行과 同程度로 高調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社會奉仕心이외다. 卽 改造八原則의 第五號에 掲載한 것이외다. 個人보다 團體를, 卽 私보다 公을 重히 여겨 社會에 對한 奉仕를 生命으로 알게 하자 함이외다. 이것이 利己心의 反對되는 것은 明瞭하거나와 家族이나, 私黨이나, 親友 같은 것도 또한 私외다. 그런데 朝鮮人은 아직 社會生活의 訓練이 없어 그 愛護의 情이 미치는 範圍가 家族, 朋黨을 超越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自己一身이나, 一家의 利害를 爲하여 社會의 利害를 不顧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니 적더라도 그 愛護의 範圍를 民族까지에 擴大할 것은 甚히 緊要합니다. 社會奉仕의 길은 둘이 있으니, 一은 社會에 益 있고 害 없는 職業을 擇함이요, 二는 모든 團體生活에 忠實함이외다. 慈善事業이나 所謂 公益事業을 하는 것만이 社會奉仕인 줄 아는 것은 잘못이외다. 이는 資本主義的 社會組織에서 有産階級만 할 수 있는 일이니, 대개 世上에서 말하는 慈善事業이나, 公益事業은 많은 金錢이나 時間을 自己의 利害와 아무 關係없는, 純全히 남을 爲한 事業에 내는 것을 이르기 때문이외다. 참 뜻의 社會奉仕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假令 農夫가 五穀의 培養에 從事하는 것, 工匠이 有用한 器具를 製作하기에 從事하는 것, 教師가 青年子弟의 教育에 從事하는 것 등의 職業自身이 이미 社會奉仕를 意味하는 것이외다. 무릇 社會의 存立에 必要한 職業(직업)에 從事하는 者는 모두 社會에 奉仕하는 者니, 그러므로 社會奉仕의 第一要件은 社會가 要求하는 職業을 가짐이외다. 職業이 없이 社會奉仕를 說하는 者가 있다 하면 그는 空論을 하는 者이외다.

社會奉仕의 둘째 길은 모든 團體生活에 忠實함이라 하였습니다. 前에도 屢次 말한 바와같이 人類의 生活은 團體生活이니, 各 個人의 生活을 分析하면 여러 가지 重重한 團體生活이외다.

實例를 들면 一個人은 첫째 國家라는 團體의 一員이겠습니다. 다음에는 道, 府, 郡, 面 같은 行政) 自治團體의 一員이겠고, 그가 宗教의 信徒면 어떤 宗教團體의 一員이겠고, 또 그가 學生이나 敎員이면 그 教育團體의 一員이겠고, 其他 個人의 性情과 職業의 方面을 따라, 혹은 政治團體, 經濟團體, 教育團體, 學術團體, 修養團體의 一員일 것이외다. 文化가 向上할수록, 生活의 內容이 複雜할수록, 團體生活의 必要와 種類가 느는 것이니, 이 團體生活을 잘하는 것이 生存에 適者인 者의 特徵이외다. 그런데 團體生活에 忠實하다 함은 무슨 뜻인가, 一言以蔽之하면 그 團體의 規約,

즉 法을 遵守함ियो, 다시 양언하면 그 團體의 維持와 發展의 逆動이 되는 金錢上의 負擔(則 納稅(납세), 會費등)에 忠實할 것, 集會에 잘 出席할 것, 그 團體를 實體로 運用하는 指導者의 指導에 順從할 것, 그 團體를 내 것이라고 舍廊하는 情을 가질 것 등이겠습니다. 指導者라 하면 國家면 元首, 會면 會長같은 것이니, 指導者를 잘 擇하는 것과, 擇한 指導者에게 잘 順從하는 것은 眞實로 團體生活에 極히 重要한 것이니, 指導者를 바로 擇할 줄 모르는 民衆도 團體生活에 成功할 資格이 없는 同時에 指導者의 指導에 順從할 줄 모르는 民衆도 團體生活에 成功할 資格이 없는 것이외다. 데모크라시란 指導者 없는 生活이란 말이 아니라, 指導者를 民意로 擇하는 生活이란 뜻이외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團體生活의 道德이 없습니다. 길게 說明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무슨 會, 무슨 會 하는 團體들이 되어가는 模樣을 보아 알 것이외다.

그런즉 懋實과, 力行과. 社會奉仕心 卽 團結의 精神을 改造하는 新民族性의 基礎로 삼자 함이외다. 그러면 이 主義에 의지하여 改造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가. 그는 반드시 普通教育과 一種의 專門教育이나 技術의 教育을 받아 社會에 有益하다고 믿는 一種의 職業을 가졌을 것이외다. 그 職業을 지극히 舍廊하고 그 職業을 가진 것을 榮光으로 알아 一生의 精力을 그것을 위하여 다할 것이외다. 대개 그는 모든 職業이 平等으로 다 尊實한 줄을 確信한 것이외다. 그 職業이 自己에게 衣食住를 주고, 社會에 대한 奉仕의 神聖한 報酬되는 名譽를 주고, 또 良心의 滿足과 活動과 成功의 缺落을 주는 줄을 알기 때문이외다. 그는 一定한 休日을 除하고는 날마다 一定한 時間 동안을 誠意와 勤勉으로 그 職業에 從事하되, 그의 하는 일, 만드는 物件이 아무쪼록 社會에 有益하기를 바라므로 속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世上은 그를 믿어 다시 疑心함이 없습니다. 그는 이 職業에 關하여 남과 去來할 때 반드시 誠意를 가지고 信用을 지킵니다. 또 그 職業을甚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困難이 있든지 危險이나 逼迫이 있더라도, 決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勇氣를 發하여 싸워 이깁니다.

이렇게 職業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勤勉하므로 酒色에 빠지거나 雜談, 博奕을 즐길 새는 없지마는 그에게는 芳醇한 家庭의 樂과 文學, 藝術, 혹은 宗教나, 哲學을 즐기며, 혹은 純粹한 交友의 樂과 同志의 會集의 樂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一定한 運動으로 健康과 勇氣와 掛絡을 연습니다.

그는 國家에 對하여서는 모든 義務를 忠實히 다하는 國民이요, 그의 參加한 모든 團體에 對하여는 忠實한 會員이외다. 그러므로 그는 혹은 體面に 끌려, 惑은 群衆心理에 끌려, 容易히 무슨 許諾을 아니하지마는 한번 許諾)한 이상 그는 決코 變함이 없습니다.

그는 偉人이 아닐는지는 모르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聖人이 아닐는지는 모르되, 누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외다. 그는 完成될 凡人이니, 이 完成될 凡人이야말로 우리가 求하는 바이외다.

改造의 方法

그러면 어떠한 方法을 取하여 이 改造의 理想을 實現할까. 理想은 아무리 좋더라도 그 實現하는 方法을 찾지 못하면 亦是 空想이 되고 말 것이외다.

方法(방법)!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經히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手段을 重히 여기나 方法을 輕히 여깁니다. 手段과 方法을 흔히 同議의 語로 쓰지마는 其實은 그 사이에는 區別이 있고 또 區別을 할 必要가 있는 것이외다.

方法이라 하면 무슨 일을 하는 길을 이룸이니,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할 때에는, 첫째는 그 일의 目的을 定하여야 하고, 둘째는 그 目的을 達하는 길을 定하여야 합니다. 出發點과 到着點 사이에는 可能한 여러 가지 길이 있음이 마치 幾何學上으로 兩點間에는 無數한 線을 그을 수 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兩點間의 最短距離는 直線이요, 直線은 一이요, 오직 一인 것같이 事業의 出發點에서 目的의 到着點까지에 達할 수 있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慎重한 考慮로써 그 最短距離라 할 만한 길을 擇하여 이 事業을 完成하기까지는 꼭 이 길로 나가자 하고 作定해 놓은 것이 方法이니, 方法이란 字義가 十分그 不變性, 不可犯性을 表하는 것이외다. 元來 方字는 模型이란 뜻이요, 法字는 먹줄이란 뜻이니 方이나, 法이나, 一定하다는 뜻이 있는 것이외다. 다시 말하면 方法이란

法律이요, 規則이며, 이에 反하여 手段이란 그 法律이나 規則의 運用의 숨씨이외다. 같은 법률이나 규칙도 잘 運用하고 못하기에 그 效力에 大關係를 生하는 것이니 手段이란 것도 일을 僞하여는 必要한 것이외다. 方法은 式이요, 手段은 活用이외다. 그러나 手段은 方法에 依하여 쓸 것이니 方法없는 手段은 되는 대로 하는 것에 不過합니다.

그러하거늘 우리들의 일하는 法은 흔히 方法을 세우지 아니하고 臨時臨時의 手段만 부리려 합니다. 그래서 手段이란 그 本來의 뜻을 잃어버리고 不正한 權謀나 術數를 意味하게 된 것이외다.

方法이란 萬事에 다 重要的 것이외다. 밥을 짓는 데도 方法이 있으니, 쌀과 물을 솥에 두고 불을 댕다고 밥이되는 것이 아니외다. 쌀과 물과의 分量의 比, 불때는 양을 다 方法에 맞게 하여야 밥이 되는 것이니, 쌀과 물과 불 세 가지 材料는 같다 하더라도 그 方法을 따라 밥도 되고, 죽도 되고, 미음도 되고, 풀도 될 것이외다, 만일 아주 方法을 그르치면, 或은 태울 수도 있고, 서릴 수도 있어 所謂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외다. 이에 對하여 같은 밥을 지으되, 질도 되도 않게 맛나게 짓는 것은 그 짓는 者의 手段이외다. 그러므로 手段은 方法을 지키는 때에만 有效한 것이외다.

좀더 어려운 말로 方法의 必要를 說明하려면 科學研究의 方法을 例로 드는 것이 便할 것이외다. 첫째, 오늘날과 같은 自然科學, 其他 諸般科學이 發達된 가장 主要한 原因이 베이컨의 歸納法의 發見이라 합니다.

歸納法이란 在來의 演繹法에 對한 自然 及 人事研究의 一方法이외다. 그런데 이 方法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科學의 發達이 된 것이외다.

무슨 科學이든지 한 科學이 成立됨에는 特殊한 對象이 必要함과 같이 特殊研究方法이 必要한 것이니, 이 方法 없이는 科學이 成立될 수 없는 것이외다.

또 單 方面으로 말하면 西洋人은 盛하고 우리는 衰하는 것도 西洋人은 生活의 方法이 옳았고 우리는 生活의 方法이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외다.

이렇게 일에는 方法이란 것이 必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가장 큰 일 되는 民族改造에 어찌 方法이 必要하지 않겠습니까.

이 方法에 關하여는 위에도 機會를 따라 말하였읍니다마는 그 中心은 改造同盟이외다. 禁酒同盟이나, 禁煙同盟과 같이 一定한 主義로 改造하기를 同盟함이외다.

「爲先 나부터 改造하자」는 뜻을 가진 者들이 同盟을 지어 하나씩 둘씩 그러한 同盟員을 늘여 가면서 서로 刺戟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어 一面 自己의 改造를 完成하면서 一面 同盟員을 늘이는 것이외다.

이제 이러한 同盟이 가장 正確한 方法인 것을 말합시다.

在來로 우리 社會에서는 思想을 傳하기로 主要事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空論을 좋아하고 實行이 없는 우리 사람들은 새로 얻은 思想을 오직 空論의 좋은 새 材料를 삼을 뿐이요, 그 思想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 別로 없었습니다. 母論 思想이 漸漸 널리 傳播되고, 漸漸 깊이 浸潤함을 따라 오랜 歲月을 지내는 동안에는 조금씩 조금씩 行으로 實現되는 것은 事實이겠지마는, 只今 우리 形便으로는 이러한 自然의 推移를 기다릴 수가 없고 마치 電氣作用과 溫度의 調節로 植物의 成長을 促進하는 模樣으로 무슨 人工의 促進方法을 쓰지 아니치 못 할 危險한 處地에 있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이리해야 된다, 저리해야 된다」고 하고 筆舌로만 떠들어 들을 者는 들을지어다, 하고 싶은 자는 할지어다 하는 緩漫한 政策에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외다. 그뿐더러 내가 보기에 우리 民族에 缺乏한 것은 思想이기보다 實行이니, 우리가 아는 것만이라도 實行하면 살 수가 있으리라 합니다. 가령 거짓이 없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學術이나 技藝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한 가지 職業을 가져야 한다, 敎育과 産業을 發達시켜야 한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 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그대로 實行함이외다. 그러므로 「나부터 먼저 改造하자」하는 것이 改造事業의 가장 確實한 方法이 되는 것이니, 대개 나 하나의 改造는 나의 가장 確實하게 可能한 바요, 따라서 나 하나를 改造하면 이에 朝鮮民族은 一片의 改造된 員을 가지게 될 것이며, 兼하여 그 改造된 한 사람이 改造思想의 實現된

模範이 될 것이니, 이 實現된 模範이야말로 가장 雄辯된 宣傳이 되는 것이외다. 이렇게 改造된 一人은 全民族改造의 發端이요, 基礎가 되는 것이외다.

이러한 사람이 同盟을 지으므로 서로 刺激이 되고 서로 輔益이 되는 同時에 改造된 사람, 적더라도 改造를 目的으로 實行하는 사람이 一團이 되기 때문에 그 實現된 模範이 더욱 뚜렷하고, 有力하게 됩니다. 特別한 主義와 行動을 하는 個人도 標가 나지마는, 그러한 個人들의 團體는 더욱 標가 나는 것이 마치 여러 千萬자루의 蠶를 한 곳에 모아 세운 것 같습니다. 비컨대 耶蘇敎會를 보시오. 그녀가 만일 敎會라는 團體를 이루고 俗人과 判異한 習俗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렇게 뚜렷하게 世人의 注目을 끌기가 어려울 것이외다. 그러므로 한 團體의 存在가 百千의 新聞, 雜誌보다 偉大한 宣傳力을 가진 것이외다.

團體의 宣傳力이 偉大하다는 實例로는 美國의 禁酒同盟이 가장 좋을 까 합니다. 그것은 距今 五十七年인가 八年前에 매튜라는 神父가 始作한 것인데, 하나씩하나씩 同盟員을 募集하여 五十七年만에 마침내 全美人民의 過半數의 同志를 얻어 昨年 七月에 드디어 그 나라 憲法에 禁酒의 條를 加入케 하였습니다. 古來로 禁酒를 宣傳한 사람이 僻 많지마는, 이 나라에서와 같이 成功한 者가 없음은 이 同盟團體라는 方法을 利用할 줄을 모른 까답이외다. 同盟을 짓는 셋째 利益은, 위에도 일찍 말한 바와 같이 그 運動의 生命을 永續케 함이외다. 個人의 生命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로되, 鞏固하게 組織된 團體의 生命은 永遠性을 가진 것이니, 비록 歲月이 가고 代가 가시더라도 그 團體의 主旨는 그냥 남아 連해 同盟者의 數를 늘일 것이며 아울러 그녀가 目的하는 事業을 永久히 繼續하여 갈 것이외다.

그러므로 이 民族改造를 目的하는 同盟團體는 可能한 모든 手段을 다하여 그의 生命이 永續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외다. 團體의 生命을 永續하게 하는 方法은 여기서 말할 바 아니니, 단 機會를 기다리려니와 한 가지 反復하여 力說할 것은 「民族改造는 오직 同盟으로야만 된다. 그러므로 이 同盟으로 생긴 團體는 가장 鞏固하여 永遠性을 가짐이 必要하다」 함이외다.

最終에 同盟이 필요한 것은, 그 主義를 宣傳하고 그 目的을 實現하기 爲한 事業을 經營하기 爲하여서외다. 同盟이 비록 좋지마는 言論으로 一般民衆에게 그 主義를 宣傳할 必要가 있으며, 또 이미 德育을 하여라, 普通學識을 배우는 一種以上의 專門學術이나 技藝를 배워라 하였으니, 그러하기에 必要한 일을 하여 주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도 또한 空論에 不過할 것이외다.

그러면 그런 일이란 무엇이뇨. 學校, 書籍等의 供給이외다. 또 體育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할 設備, 곧 衛生設備나 體育場의 設備, 衛生書, 體育書等의 提供이 必要할 것이외다. 그리고 보니 이런 모든 것을 施設하려면 巨額의 金錢과 多數의 人材가 必要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서 나오나. 오직 鞏固한 團體에서외다. 在來 우리의 모든 事業은 一定한 財力과 人力이 없이 하였습니다. 假令 新聞, 雜誌나 學校를 經營하는 者中에 진실로 이러한 豫算을 세우고 하는 者가 몇이나 됩니까. 所謂 「맘만 있으면 된다」 하고, 「始作만 하면 된다」 하여 맘만 가지고 始作한 것이 많았으며 모두 몇 날이 못가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곤란을 무릅쓰고 열심을 내라는 格言이 되지마는 맘이 밥이 되고 맘이 나무가 되지 않는 이상 맘만 가지고 일이 될 理가 있습니까. 일을 이루는 것은 오직 「힘」 뿐이니, 힘이란 무엇이뇨, 사람과 돈이외다.

그런데 우리네는 흔히 사람을 쓸 때에 臨時臨時 아무나 말마디나 하는 者면 골라 쓰려하고, 돈은 義損이나 一時一時 어떤 富者를 꺾어 내어서 쓰려 합니다. 작은 事業에나 큰 事業에나 다 이러합니다. 이것으로 어찌 일이 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란, 그 일의 專門家이기를 요구합니다. 政治에는 政治의 專門家, 産業에는 各各 그 方面의 專門家, 教育에는 教育의, 新聞雜誌에는 新聞雜誌의 專門家를 要求하는 것이니, 專門의 敎養이 없이 臨時臨時로 政治家도 되고 教育家도 되었다가 銀行支配人도, 雜誌主筆도 되는 것은 아주 社會의 分化가 생기지 아니하였던 옛날의 일이외다. 專門家란 그 職業에 相當한 德行(卽 信用, 勤勉, 信義, 勇氣)과 거기 相當한 專門學識을 가진 者를 일컬음이니, 이러한 資格을 얻으려면 十數年의 誠意로운 修養과 經驗을 쌓아야 하는 것이외다. 專門家아니고 某種의 事業을 經營하려 함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 空想에 不過합니다.

돈에 關하여 말하건대 一時的事業, 比컨대 어떤 地方에 水災가 나서 그 罹災民을 救濟하는 事業같은 것은 義損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敎育事業이나 新聞, 雜誌, 其他 무릇 永久性을 가진 事業을 經營하는 데는 반드시 每年에 一定한 收入이 있기를 要하는 것이니, 이 一定한 收入을 얻는 길은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니, 하나는 그 團體의 客員이 一定한 期間內에 一定한 金額을 釀出함이니 이는 國家의 納稅, 恒用團體의 會費같은 것이요, 또 하나는 基本金이니 이는 어떤 團體의 會員들이 얼마씩을 내어 그 本錢을 永永 쓰지 않고 利子만 쓰는 制度니 近代 各種産業團體, 敎育團體, 其他 社會事業의 團體들이 많이 取하는 것이외다.

이 두 가지 中에서 가장 確實한 것은 基本金主義니, 이것에서 나오는 每年의 收入이 一定한 金額以上일 것이 確實합니다. 會費主義는 國家나 宗教와 같이 特殊權力을 가진 團體가 아니고 꼭 一定한 金額以上의 收入을 確保하기가 어려운 것이외다. 무릇 永久性을 가진 事業을 하려 하는 團體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은 人力과 金力의 準備를 가짐이 絶對로 必要한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理想과 計劃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空論이 되고 말 것이외다.

그러므로 民族改造를 目的하는 者들이 크고 堅固한 同盟을 지음이 이 두 가지 힘을 얻는 唯一한 길이니 同盟의 큰 必要를 여기에서도 볼 것이외다.

이 모양으로 改造된 個人들, 卽 健全한 人格者들과, 그네의 同盟한 團體, 卽 堅實하고 큰 團體를 이루면 이에 우리 事業의 基礎는 確立한 것이니, 이로부터 오직 漸漸 理想을 實現하면서 長成함이 있을 뿐이지 決코 退步함이 없을 것이외다.

위에 말한 改造의 方法은 그 大綱領을 든 것이어니와 이는 萬古에 互하여 變치 아니할 眞理외다. 그러나 이 方法의 細密한 點에 이르러서는 다른 때에 말하는 것이 適當하리라 합니다.

結 論

나는 以上에 民族改造의 意義와, 歷史上의 實例와, 朝鮮民族改造는 絶對로 緊하고 急함과, 民族의 可能함과, 그 理想과 方法을 말하였습니다.

世人中에는 朝鮮民族의 將來에 對하여 悲觀하는 者도 있고 樂觀하는 者도 있을 것이외다. 또 悲觀하는 者中에도 그 悲觀의 理由가 여러 가지일 것이니, 或은 朝鮮民族의 外國의 事情의 不順을 理由로 하는 者도 있을 것이요, 或은 朝鮮民族은 精神上으로나 物質上으로나 疲弊의 極에 達한 것을 理由로 하는 者도 있을 것이요, 甚한 者는 朝鮮民族의 本性이 劣惡하여 到底히 繁榮을 期치 못할 것을 理由로 하는 者도 있을 것이외다.

이러한 모든 悲觀의 理由가 다 一面의 眞理를 가진 것이니 一概로 嘲笑해 버릴 것은 아니외다.

또 樂觀者便에도 그 樂觀의 理由가 하나가 아닐지니, 或은 天運이 循環하여 否往泰來할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하는 幼釋한 宿命觀을 理由로 하는 者도 있을 것이요, 或은 悲觀論者와 正反對로 朝鮮民族의 天質이 優秀함은 古代史의 證明하는 바라는 것을 理由로 하는 者도 있을 것이요, 或은 廣漠한 世界의 大勢를 理由로 하는 자도 있을 것이외다.(제 民族의 運命에 關하여 아무 생각도 없는 者는 말할 必要도 없는 일이외다.) 이러한 樂觀說에도 또한 取할 點은 있지만 그 眞理를 含有한 分量으로는 悲觀說이 훨씬 優勝합니다. 진실로 樂觀者의 이유는 極히 幼釋하고 淺薄합니다. 天運循環이란 것은 學論할 必要도 없고(其實 多數의 朝鮮人을 支配하는 思想이겠지마는) 民族의 本質의 優秀라는 것도 지금 形便에 누가 믿어 줄 말이 못되며 또 設使 本質은 優秀하더라도 墮落한 今日에는 優秀한 點보다 劣惡한 點이 많은 것은 事實인즉 이것이 樂觀의 理由가 될 수는 없는 것이요, 世界大勢論者는 新文明, 新思想으로 民族을 一新케 하면 살아 나리라는 意味로는 眞理이나, 政治의 意味로 말하는 것이라 하면 掛齒할 바가 아니외다.

樂觀論者에 가장 確實하고 高級의인 것은 우리가 힘써서 살리라 하여 文化運動을 主唱하는 者외다. 그네는 생각하기를 講演을 하고 學校를 세우고 會를 組織하고 新聞이나 雜誌를 經營하고 書籍을 出版하는 등, 이른바 文化事業으로 足히 이 民族을 救濟하여 幸福과 繁榮의 길에

넣으리라 합니다. 이는 毋論 옳은 自覺이니, 대개 이는 모든 幸福되고 繁榮하는 民族들이 그 幸福과 繁榮을 얻는 길로 하는 事業이외다. 그러나 朝鮮民族은 너무나 뒤떨어졌고, 너무도 疲弊하여 남들이 하는 方法만으로 남들을 따라 가기가 어려운 處地에 있으니 무슨 더 根本的이요, 더 速達의 方法을 찾을 必要가 있습니다.

爲先 現在 있는 대로의 狀態로는 文化事業도 하여 나갈 수 없으리만큼 朝鮮民族은 衰弱하였습니다. 滋養分과 運動을 取하게 하기 前에 爲先 坎痛注射가 必要하게 되었습니다. 보시오, 學校들이 생기나 維持할 能力이 없어 거꾸러집니다. 會들이 생겼으나 또한 그러하고, 雜誌와 新聞들이 생겼으나 또한 그러합니다. 文化事業을 할 사람이 없고 할 돈부터 없는 處地입니다. 사람부터 만들자, 돈부터 만들자 하는 것이 맨 먼저 必要합니다.

그러면 내 意見은 어떠냐. 이 論文에 말한 것으로 이미 斟酌도 하였으려니와, 나는 차라리 朝鮮民族의 運命을 悲觀하는 者외다. 前에 말한 悲觀論者의 理由로 하는 바를 모두 眞理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果然 順치 못한 環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以上을 想像할 수 없으리 만큼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 疲弊한 境遇에 있습니다. 또 우리 民族의 性質은 劣惡합니다(根本性은 어찌 되었든지 現狀으로는). 그러므로 이러한 民族의 將來는 오직 衰頹 又 衰頹로 漸漸 떨어져 가다가 마침내 滅亡에 빠질 길이 있을 뿐이니 決코 一點의 樂觀도 許할 餘地가 없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三十年만 이대로 내버려두면 지금보다 倍以上의 疲弊에 達하여 그야말로 다시 일어날 餘地가 없이 되리라 합니다. 만일 내 말이 驕激하다 하거든 지나간 三十年을 돌아 보시오! 얼마나 더 性質이 腐敗하였나, 紀綱이 解弛하였나, 富가 줄었나, 自信이 없어졌나. 오직 조금 進步한 것은 新知識이어나와, 知識은 武器와 같아서 優秀한 者에게는 福이 되고 劣惡한 者에게는 禍가 되는 것이라, 이 所得으로 足히 所失의 十의 一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외다.

그러면 이것을 救濟할 길이 무엇인가. 오직 民族改造가 있을 뿐이니 곧 本論에 主張한 바외다. 이것을 文化運動이라 하면, 그 가장 徹底한 者라 할 것이니 世界各國에서 쓰는 文化運動의 方法에다가 朝鮮의 事情에 應할 만한 獨特하고 根本的이요, 組織的인 一方法을 添加한 것이니 곧 改造同盟과 그 團體로서 하는 가장 組織的이요, 包括的인 文化運動이외다. 아아 이야말로 朝鮮民族을 살리는 唯一한 길이외다.

最後에 한 가지 미리 辨明할 것은 이 改造運動이 政治的이나, 宗教的의 어느 主義와도 相關이 없다 함이니 곧 資本主義, 社會主義, 帝國主義, 民族主義, 또는 獨立主義, 自治主義, 同化主義, 어느 것에나 屬한 것이 아니외다. 改造의 性質이 오직 民族性과 民族生活에만 限하였고, 또 目的하는 事業이 上述한 바와 같이 德體知三育의 教育의 事業의 範圍에 限한 것인즉 아무 政治的色彩가 있을 理가 萬無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외다. 루소의 말에 「政治家가 되기 前에, 軍人이나 牧師가 되기 前에 爲先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한 것이 있거니와 이것이 改造運動의 界限이니 同盟者中에는 온갖 主義者, 온갖 職業者, 宗教의 信者를 包含할 수 있는 것이니 대개 懋實하자, 力行하자, 信義 있자, 奉公心을 가지자, 한 가지 學術이나 技藝를 배우자, 職業을 가지자, 學校를 세우자, (學術)이나 기예(技藝)를 배우자, 직업(職業)을 가지자, 학교(學校)를 세우자, 하는 것 등은 어느 主義者나, 어느 宗教의 信者나를 勿論하고 共通한 信條로 할 수 있는 것이외다. 어느 宗教의 信者는 改造同盟에 들어 그대로 修養하므로 참으로 좋은 信者가 될 것이요, ××主義者는 참으로 좋은 ××主義者가 될 것이니 대개 이는 人的 根本되는 모든 要件이기 때문이외다. 이에 나는 民族改造에 關한 思想과 計劃의 大要를 述하였습니다.

나 自身이 이 主義者인 것은 勿論이거니와 讀者 中の 多數가 여기 共鳴할 것을 믿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實現될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매 넘치는 기쁨으로 내 작은 生命을 이 高貴한 事業의 基礎에 한 줌 흠이 되어지라고 바칩니다.

(一九二二年五月 <<開關>>)

주

註 1. 국궁진취(鞠躬盡瘁) = 마음과 몸을 다하여 나라 일에 이바지함

註 2. 「알인욕이존천리」 = 사람의 욕심을 눌러 천리를 존재케 한다.

註 3. 「군자국재기복의관대검식수사이문호재방기이호야우쟁」 = 군자의 나라가 북쪽에 있으니, 의관을 하고 검을 차고 짐승을 잡아 먹고 이문호(표범류)를 곁에 두며 그 나라 사람들은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아니한다.

註 4. 「동방기인국유군자훈서시식조호시사아호예양에위론리」 = 동방의 기품이 어진 나라에 군자가 있으니 훈서를 먹고 조호를 부리며 예로 사냥하기를 맑게 좋아하고 예로 논리에 맡긴다.

註 5. 「동방유인남개호대현관녀개채의항공좌이불상범상예이불상취견인유환투사구지창졸견지여치명왕선인」 = 동방에 사람이 있으니 나자는 모두 흰 띠를 띠고 검은 관을 쓰며 여자는 모두 채색 옷을 입고 항상 공손히 앉아 서로 범하지 않으며 서로 기리어 서로 홍보지 않으며 타인에게 병환이 있는 것을 보고는 죽음을 무릎쓰고 구하나니 잠간 보매 어리석은 사람 같으나 이름은 가로대 착한 사람이라 한다.

註 6. 「음식용조두회동배작세작음양승강」 = 음식에 조두를 쓰고 함께 모여서는 절하며 잔을 나누고 잔을 씻고 오르고 내리에 절하여 사양한다.

註 7. 「기속행자상봉개왕양로」 = 그 풍속이 길 가는 자가 서로 만나매 모두 가며 기를 양보한다.

註 8. 「기인성원각소기욕유렴치」 = 그 사람의 성질이 정성스럽고 즐겨 욕심부림이 적고 염치가 있다.

주 9. 「부여기인추대강용이근후불위구조...행인무주야호가음음성부절」 = 부여의 사람들은 거칠고 크고 강하며 용감하면서 근후하여 도둑질하지 않으며... 행인은 주야가 없이 있고 노래하고 율음을 좋아하여 음성이 그치지 아니하다.

주 10. 「상이오월전경제귀신주야회군회취가무무첩수십이사수다지위절」 = 항상 오월로써 받을 마침에 귀신에 제사하고 주야로 주회를 열고 무리가 모임에 노래하고 춤추고 춤추며 문득 수십인이 서로 따라 땅을 밟고 절을 이룬다.

주 11. 「칠십중시소욕불유구」 = 칠십에는 마음이 욕하는 바를 따라도 법을 넘지 않는다.